



코스피
2591.31
(-24.00)

코스닥
807.99
(-6.78)

금리 (미국 3년)
3.312
(+0.064)

환율 (원·달러)
1330.80
(+8.20) (5일)



尹 “돌봄, 대통령의 책임
공교육이 교육 중심 돼야”
02

‘삼성물산 합병’ 적법성 확인… JY, 3년6개월 만에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회장〉

‘부당합병’ 의혹 1심 선고

법원 “공소사실 증명 할 수 없다
지배력 강화 유일 목적 아니며
주주손해 끼쳤다는 증거도 없어”
삼성전자 임직원들도 ‘무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이 회장의 결백을 인정한 것이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돼 수년간 재판을 받아온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에게도 나란히 무죄가 선고됐다.

〈관련기사 3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5일 이 회장 등 피고인 14명을 대상으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법원은 이 회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과 장충기 전 사장 등 임직원 전원에도 마찬가지로 죄가 없다고 봤다.

법원은 이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 모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시스

두에 대한 공소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핵심 사안이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지배력 강화를 위한 유일한 목적이 아니며, 합병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당시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를 방어하려 했다는 등 분식회계 등 혐의 역시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2020년부터 진행된 ‘부당합병’ 관련 재판에서 3년 6개월여만에 결백을 인정받게 됐다. 이 회장은 그동안 100여 차례에 걸쳐 진행된 공판에 대부분 참석하며 일관되게 결백을 호소해왔다.

앞서 검찰은 이 회장이 임직원들과 함께 승계를 목적으로 한 문건 ‘프로젝트 G’를 만들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면서 제일모직 지분이 많은 이 회장에 유리하도록 주가를 관리하는 등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증거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 검

찰은 기소 직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를 하지 말라고 권고했음에도 기소를 강행하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다. 결국 검찰은 지난해 말 이 회장에 대해 징역 5년형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전현직 임직원에도 실형을 구형하며 처벌을 촉구했다.

반면 이 회장은 결심공판에서도 주주에 피해를 끼치거나 속일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잘못이 있다면 스스로 감당할 몫이라며 임직원들에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결국 법원은 이 회장 손을 들었다. 프로젝트G가 기업에서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는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며, 약탈적 승계행위와는 관련이 없다고 봤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도 이 회장 뿐 아니라 주주에게도 이익을 줄 수 있는 결정으로, 주주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양사 이사회를 거친 것도 정당한 절차였다는 근거로 들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성공 여부도 불확실했다며 의도적으로 콜옵션

을 숨겼다는 검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아직 사법리스크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는 이르다. 검찰이 항소할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 검찰측은 일단 입장을 밝히지않은 상태다.

다만 검찰이 당초부터 수심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탓에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이 남아있는데다가, 경제 위기 속에서 이 회장 역할론이 각계에서 거론되는 만큼 항소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남아있다.

특히 이 회장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오랜 기간 꼬리표처럼 붙어있던 불법 합병 의혹을 법정에서 해소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이를 통해 이 회장이 예전보다 공격적으로 경영을 펼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이 회장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다만 변호인이 삼성물산 합병과 분식회계 등이 적법함을 확인했다며 재판부에 감사를 표했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용산국제업무지구’ 내년 착공

100% 녹지확보… 100층 친환경 수직도시 들어선다

서울시, 코레일·SH와 계획 수립
도심복합개발 혁신전략적용 첫 사례
고용 15만명, 생산효과 33조 기대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최대 용적률 1700%, 높이 100층 내외의 랜드마크가 들어서고, 약 50만㎡ 규모의 녹지가 조성된다. 내년 하반기에 기반시설 공사를 시작해 이르면 2030년 초에 입주를 시작한다.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해 올 상반기 구역 지정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발계획은 서울시와 사업시행자인 코레일·SH공사가 함께 마련했다. 사업부지 면적이 49만5000㎡에 달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는 2010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3년 자금부족·국제금융위기 등으로 구역지정이 해제됐으나, 이번 계획을 통해 만 10년 만에 다시 빛을 보게 됐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은 시가 추진 중인 ‘도시공간 대개조’의 핵심 프로젝트다. 비온드 조닝, 보행일상권, 도시·건축디자인 혁신, 정원도시 서울 등 도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



심복합 개발을 위한 혁신 전략이 한꺼번에 적용되는 최초 사례다. 시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이 완료되면 14만 6000명의 고용 효과와 연간 32조 6000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했다.

우선 시는 업무·주거·여가·문화 등이 도보권 내에서 한꺼번에 해결되는 ‘콤팩트시티’ 구현을 위해 용산국제업무지구 구역을 국제업무, 업무복합, 업무지원 3개 존(Zone)으로 구성했다.

100층 내외의 랜드마크가 들어서는

중심부인 ‘국제업무존(8만8557㎡)’은 용도 지역을 기존 제3종일반주거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해 최대 용적률을 1700%까지 부여, 고밀복합개발을 유도한다.

국제업무존에는 금융 및 정보통신기술 기업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프라임급 오피스와 함께 마이스 시설, 호텔, 광역환승센터 등을 조성한다. 랜드마크 최상층에는 서울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전망시설·아트랙션 등 복합놀이 공간을 설치한다.

업무복합·업무지원존은 ‘일반상업지역’ 등으로 용도 지역을 상향해 전체 사업 지구 평균 용적률이 900% 수준이 되도록 계획했다.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업무복합존(10만4905㎡)’에는 용산전자상가, 현대R&D센터와 연계한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업무 및 기업지원 시설이 입주해 서울의 신산업 경쟁력을 선도한다. ‘업무지원존(9만5239㎡)’에는 주거·교육·문화 지원 시설이 들어선다.

시는 지하부터 지상, 공중에 이르기까지 공간 전체를 입체적으로 활용해

사업 부지면적과 맞먹는 규모의 녹지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구역 면적의 20%는 ‘도시계획시설’로 공원·녹지를 확보하고 30%는 민간의 공개공지를 활용해 ‘개방형 녹지’로, 나머지 50% 내외는 ‘건물 테라스나 옥상·벽면녹화’로 녹지를 마련할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지상공원 등 평면 녹지뿐 아니라 ▲공중녹지(그린스퀘어) ▲순환형녹지(그린커브) ▲선형녹지(그린코리더) 등 수직·수평 녹지를 폭넓게 확보해 용산공원~한강공원~노들섬으로 이어지는 녹지 보행축을 완성한다는 복안이다.

용산역 남측 선로 상부에 들어서는 8만㎡ 크기의 ‘공중녹지(그린스퀘어)’는 한강공원~용산역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입체공원으로 거듭난다. 폭 40m·연장 1km에 이르는 U자형 ‘순환형 녹지(그린커브)’는 국제업무지구 내 어디서나 사통팔달 접근할 수 있는 개방형 녹지로 만들어지고, ‘선형녹지(그린코리더)’는 주변 시가지와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이어주는 보행·통경축 기능을 하게 된다.

/김현정 기자 hjk1@

이번 총선에서도

여야 위성정당 창당

제3지대 “망국적 발상” 비판

거대 양당이 4·10 총선을 앞두고 또 다시 위성정당을 창당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배분 방식이 현행 준연동형으로 유지될 경우를 대비해 이미 위성정당 창당 준비 절차를 밟고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5일 위성정당 창당을 공식화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광주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과거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며 “정권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6면〉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 창당을 결정하자 제3지대에서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존 양당독점 정치구조와 정치양극화의 폐해를 극대화하는 망국적 발상”이라며 “준위성정당은 위성정당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악성 책략”이라고 비판했다.

/서예진 기자 syj@

바스타비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경동시장 찾은 한동훈 “경기가 안좋아 미안한 마음 가지고 왔다”?
▲ 원희룡 “이재명 준연동형 유지, 1인 위한 선거제로 타락”
/사진 뉴시스

▲ 이준석 “위성정당, 입법 취지 맞게 할 것… 물리적으론 가능”
▲ 심야 대통령 관저로 택시 20여대 진입 시도…경찰 수사



▲ 박근혜, 수감중 메모 공개… “서로 보듬으며 더 나은 한국 만들길”
▲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재선 도전 선언… “정부에 강한 국회의원”
/사진 뉴시스

“돌봄, 대통령의 헌법상 책임… 공교육이 교육중심 돼야”

尹, ‘늘봄학교’ 주제 민생토론회

“울초부터 늘봄학교 전국 운영
내후년까지 초등 전학년 확대”

“부모돌봄→국가돌봄 나아가야
원하면 기회 누리도록 속도낼 것”

윤석열 대통령이 늘봄학교 현장을 찾아 “돌봄은 우리 공동체 모두의 책임이고,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이고,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의 헌법상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늘봄학교란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해 아침 수업시간 전부터 최장 오후 8시까지 정규수업 이외의 종합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윤 대통령은 5일 경기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를 주제로 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교육의 중심은 공교육이 돼야 하고, 공교육의 중심은 결국 학교”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초등학교생 자녀를 둔 가정이 겪고 있는 돌봄의 어려움에 대해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늘봄학교를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 앞서 신우초의 늘봄학교 교실을 찾아 방송댄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도 하남 신우초등학교에서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 주제로 열린 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앞서 늘봄학교 방송댄스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있다. /대통령실



/자료=교육부

/그래픽 뉴스

스·주산 암산 수업을 참관했다.

윤 대통령은 “재미있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저도 매우 기뻐했다”며 “늘봄학교를 올해부터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해 누구나 이런 기쁨과 기회를 다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늘봄학교를 중점 추진해 올 상반기에는 2000개 학교, 하반기에는 전체 초등학교로 확대하고, 2026년까지는 저학년에서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보통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엄마가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이제 그 짐을 정부가 많이 책임지고 덜어드리겠다”며 “학부모들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기고 마음껏 경제사회 활동을 하려면 학교돌봄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페어런츠 케어(부모돌봄)’에서 이제는 ‘퍼블릭 케어’, 즉 국가돌봄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 퍼블릭 케어를 정착시키려면 무엇보다 학교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아이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에 가고, 가장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학교가 돼야 한다”며 “좋은 학교시설을 활용한 국가돌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59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올해 예비학부모 수요조사에서 83.6%가 늘

봄학교 참여를 희망한다며 “정부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원하면 누구나 이런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추진 속도를 확실히 높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지역과 여건에 맞춰 이른 아침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시간을 늘리고, 무료 프로그램, 저녁 식사 제공 등 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다양화시켜서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면서 유익한 것들을 배우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아이들을 돌보고 케어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교육”이라며 “음악, 미술, 체육, 댄스, 연극, 합창, 디지털 활용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인성과 창의력을 키우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학교를 중심으로 대학, 기업, 지자체, 기관 등 지역사회와 협력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고, 늘봄학교가 더 알차게 운영되기 위해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재능기부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어린이를 위한 나라,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국가가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방과 후에 풀이 죽은 아이들이 방황하도록 내버려 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metroseoul.co.kr

반려견 치매치료제 ‘제다큐어’ 글로벌 공급

지엔티파마, 美 화이자서 위탁생산
미국 등 21개 국서 구매요청 200건
“판매지역 유럽 등으로 더 확대할 것”

글로벌 빅파마인 화이자가 국내 바이오 벤처 지엔티파마가 개발한 반려견 치매치료제 ‘제다큐어(사진)’를 생산, 미국은 물론 전 세계 시장으로 공급한다. 지난 2021년 국내에서 제다큐어 판매가 시작된 이후 전 세계에서 구매 요청이 쇄도하면서 해외 진출 요구가 높아진 데 따른 결정이다.

지엔티파마는 5일 반려견 인지기능 장애증후군 신약 제다큐어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화이자 센터원과 선진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cGMP)에 따라 완제의약품 생산하는 포괄적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화이자 센터원은 미국의 세계적인 제약·바이오 기업인 화이자의 자회사로, 세계 30여국에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는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이다.

이번 계약에 따라 화이자는 제다큐어의 미국, 유럽 등 시장 진출을 위해 글로벌 동물용 의약품 기준에 맞는 위탁제조 및 품질관리 등 토탈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다큐어의 원료의약품인 ‘크리스 데살라진’은 중국 헝디안 그룹의 아펠로아제약에서 생산하고 있다.

지엔티파마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제다큐어는 사람의 알츠하이머 치매와 유사한 인지기능 장애증후군을 앓고 있는



반려견에서 약효와 안전성이 입증돼 2021년 2월 국내 최초 합성신약 동물용 의약품으로 승인받았다. 현재 국내에서는 유한양행을 통해 1800개가 넘는 동물병원에서 처방되고 있다.

회사측에 따르면 제다큐어 국내 판매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를 구매하려는 해외 반려인과 동물병원의 요청도 쇄도했다.

최근까지 미국을 비롯한 21개국에서 200여건의 구매 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99곳으로 가장 많고 브라질 13곳, 일본 11곳, 영국 9곳, 멕시코 7곳 등 순이다.

지엔티파마 애니멀 헬스 사업본부이진환 본부장은 “현재 러시아, 대만 및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에서 제다큐어의 공급을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화이자 센터원에서 제다큐어의 생산이 완료되는 대로 판매 지역을 미국, 유럽 등 해외 시장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반려동물용품협회(APPA)에

따르면 2020년 미국 내 전체 반려견 수는 8970만마리로 파악되고 있다. 이 가운데 인지기능 장애증후군 환견 수는 노령견 비율(52%)과 발병률(21.4%)로 산출했을 때 998만마리로 추정된다. 유럽은 전체 반려견 수 7200만마리 가운데 환견 수는 801만마리에 달한다.

지엔티파마는 “제다큐어를 미국 시장에 판매할 경우 펫보험 가입률(4%)을 적용했을 때 연간 약 574억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높은 펫보험 가입률로 인해 연간 약 1140억원의 매출이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엔티파마는 최근 글로벌 동물용 의약품 제약사들과 제다큐어 해외 판매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곽병주 지엔티파마 대표이사는 “인지기능 장애증후군에 걸린 노령견이 제다큐어를 복용한 후 기억을 회복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해지는 치료 효과가 임상시험과 시판 후 조사에서 입증됐다”며 “국내 동물병원에서 약효와 안전성이 충분히 밝혀진 만큼 전 세계 반려동물과 반려가족을 위해 제다큐어의 해외 진출을 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세경 기자 seilee@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PF 부실’ 새마을금고, 금융위서 상시감독

행안부와 업무협약 체결
경영건전성 관련 정보 제공

앞으로 새마을금고의 리스크를 금융당국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다른 금융기관과 달리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가 관리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의 부실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5일 행정안전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새마을금고를 상시 감독한다고 밝혔다.

앞서 새마을금고는 지난 7월 부동산 PF 연체율 상승으로 부실 의혹이 제기되면서 뱅크런(대규모예금인출) 위기를 겪은 바 있다.

이는 최근 주택경기가 다시 침체하면서 새마을금고를 감시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게 시급해졌다는 시각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해 3분기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134조3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조2000억원 늘었다. 연체율도 같은 기간 2.17%에서 2.42%로 상승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새마을금고의 경영건전성 기준은 다른 상호금융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설정한다. 지금까지 새마을금고는 농협·수협·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권과 달리 행정안전부가 관리한다는 이유로 경영건전성이 별도로 관리됐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를 감독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와 공유



/뉴스

한다.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파악하기 위해 받았던 ▲자본의 적정성 ▲유동성 ▲수익성 등의 자료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금융위원회도 새마을금고가 다른 금융기관처럼 관리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다른 상호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이 밖에도 새마을금고 검사에는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가 참여한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를 검사하기 전 검사 대상 선정과 인력 배정 등의 계획에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를 참여시키고, 검사 시에도 새마을금고가 협조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업무협약은 이날부터 1년까지 유효하며, 폐지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없이 갱신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새마을금고는 서민경제의 버팀목이자 우리금융시장 안정에 적지않은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새마을금고가 변화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족쇄풀린 JY... 경영 안정화 기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초대형 M&A 등 ‘뉴삼성’ 가속도

삼성, 혁신작업 본격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드디어 ‘부당합병’ 의혹을 씻어내면서 삼성이 모처럼 경영을 안정화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는 모습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해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기업가의 기본적 책무를 강조하며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고 약속했다. 이 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이후 다시 한 번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당시 이 회장이 대규모 투자와 공헌 활동을 확대하며 약속을 이행했던 만큼, 앞으로도 이 회장은 사회적 활동에 힘을 쏟을 가능성이 높다.

이재용 “모든 것 쏟아붓겠다” 약속 사회적 책임 다하겠다는 의지로 해석
반도체 1위 내줘... 경쟁력 약화 우려
최우선 과제 ‘의미있는 투자’ 꼽혀

무엇보다 이 회장이 안정적으로 경영에 복귀할 수 있게 되면서 글로벌 경영 침체와 맞물린 경쟁 심화, 보호무역 등에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동력을 얻을 것으로 재계는 기대하고 있다.

당장 ‘뉴 삼성’ 전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고(故) 이근희 회장이 신경영 선언을 한지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삼성을 이끌 미래 전략이 아직 부재하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삼성 뿐 아니라 국가적인 미래성장동력을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이 회장이 새로운 미래 비전을 수립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이 회장은 그동안 다양한 신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며 높은 통찰력을 증명했지만, 여전히 ‘신경영 선언’에 비견할만한 새신 계획은 내놓지 않은 상태다. 비메모리 반도체와 네트워크 등 다양한 산업 육성책을 추진 중이긴 하지만 사내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아직 뒤쳐져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여러 사업이 터닝포인트를 맞이했다. 삼성전자는 어렵게 차지한 반도체 세계 1위를 다시 인텔에 뺏긴 상황이다. 메모리를 중심으로 파운드리까지 더하면서 경쟁력을 대폭 높였지만, 기술 난이도가 대폭 높아지고 정부를 앞세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장기적으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됐다.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던 D램도 AI 시대에 HBM 등으로 점유율이 떨어지고, 파운드리 사업도 미세 공정을 선점하면서도 좀처럼 점유율을 높이지 못하고 있다.

그밖에도 디스플레이를 비롯한 전자 계열사는 물론, 친환경 시대를 맞아 삼성물산 상사부문 등이 새로운 동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지배구조 개편도 밀려있는 숙제다.

이 회장이 가장 먼저 선행해야 할 과제로는 ‘의미있는 투자’가 꼽힌다. 삼성전자는 100조원 수준 유보금을 가지고 있지만 2017년 하만을 인수한 이후로는 그렇다할 인수 합병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당초 지난해까지 의미있는 투자를 완수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운 분위기로 알려졌다. 이 회장이 경영 안정을 찾았다면 조속히 단행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JY네트워크도 본격적으로 재가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장은 오랜 기간 전 세계에 확보한 인맥을 활용해 삼성전자 반도체와 네트워크, 바이오 등 주력 사업에서 어려움을 직접 해소해왔다.

재계 관계자는 “이 회장이 직접 사업에 관여하지는 않아도, 경영자들이 책임을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경영 안정성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게 사실”이라며 “이 회장이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난다면 지지부진했던 삼성 혁신 작업도 본격화하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삼성에는 최근 사회 공헌 사업을 대대적으로 확대하며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쏟아부었다. ‘함께가요 미래로, 인에이블링 피플’이라는 비전 아래 이 회장 주도로 전국에 ‘삼성청년 SW아카데미’와 ‘삼성드림클래스’, C랩 등을 추가 운영하며 청년 교육과 일

자리 창출 등에 힘써왔다. 삼성이 국내 주요 대기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공채 제도를 유지하는 것 역시 사회적인 역할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 사회 공헌 활동은 이 회장이 취임한 이후 전사적인 시너지를 본격화하고 있다. 사회 기부 활동과 명절 조기 대금 지급 등 상생 활동을 비롯해, ‘나눔 키오스크’를 활용한 사회공헌 프로그램 등을 전사적으로 함께 추진하며 기부 금액과 지원 분야를 늘리고 있다.

한편 당시 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이끌었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수사부 부장검사)도 판결이 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금융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중 한 사람으로서 삼성그룹과 이재용 회장이 이번 절차를 계기로, 경영혁신이나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에 족쇄가 있었다면 심기일전할 기회가 되면 좋지 않겠나 싶다”고 피력하기도 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삼성 부당합병 의혹, 수사 착수부터 이재용 1심 선고까지 SAMSUNG

2018년	7월 12일	증권선물위원회,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기준 위반 결론
	19일	참여연대, 김태한 바이오로직스 대표 등 검찰 고발
	25일	서울중앙지검, 참여연대 고발된 특수2부 배당
2019년	11월 20일	증권위, 대검찰청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고발
	21일	서울중앙지검,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건 특수2부 배당
	4월 25일	검찰,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직원 대상 첫 구속영장 청구
2020년	8월 6일	검찰, 바이오로직스 수사팀 특수2부→특수4부로 변경
	12월 9일	법원, ‘삼바 증거인멸’ 부사장 3명 1심 유죄 선고
	2월 11일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검찰 출석
2021년	4월 24일	검찰, 이영호 삼성물산 대표 조사
	5월 26일	검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소환 조사
	6월 2일	이재용 부회장 측,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
2022년	11월 11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회의 "이재용 수사 중단, 불기소" 의결
	9월 1일	검찰, 이재용 부회장 등 11명 불기소 기소
	3일	법원, 부당합병 의혹 사건 형사합의25-2부에 배당
2023년	10월 22일	법원, 이재용 부회장 등 1차 공판준비기일 진행
	8월 13일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출소
	7월 29일	이재용 부회장 형기 만료
2024년	10월 27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직 임명
	8월 25일	법원, 이재용 부회장 등 100차 공판기일 진행
	11월 17일	검찰, 이재용 회장에 징역 5년 구형
2024년	2월 5일	법원, 이재용 회장에 무죄 선고

/뉴시스 그래픽

하이메리트 연말까지 누리는 특별 혜택

하이투자증권

국내주식 신용금리 연말까지 연 4.9% + 신용이자 최대 100만원 지원 (제세공과금 제외)	미국주식 수수료 2개월 완전무료 + 미국주식 매매 시 최대 60\$ IM하이 거래시
국내선물옵션 수수료 매매만 해도 3+3개월 KOSPI200선물기준 0.00025104% (온라인, 상품별 상이, 예스트레이더 제외)	국내/미국 타사대체 주식 옮기고 현금 받자! 최대 1천만원 (거래 조건 있음)

기간 2024.01.25 ~ 2024.04.16

대상 비대면 스마트지점에서 개설된 최초 신규 및 휴면계좌

비대면 신규/휴면고객 대상 ※100일간 주식수수료 국내0.01%, 개설일로부터 2개월 미국주식 수수료 완전무료(온라인) ※투자 전 설명 청취 및 상품설명서 필독, 예금자보호법상 보호상품 아님, 자산가격/원율 변동, 신용등급 변동 등에 따른 원금손실(0~100%) 또는 초과손실 발생가능 및 투자자 귀속, 적정담보비율 미달 시 담보증권 임의처분 유의, 상환능력 대비 과도한 대출 시 개인신용평점 하락 및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 발생 가능, 유지중거금 미달 시 강제청산 유의 ※이벤트 미적용 국내 0.0972%~0.4972%, 미국 0.25%~0.5%, 매도시 SEC FEE 0.0008%(이벤트 시작일 기준) 별도 발생, 선물옵션 이벤트 혜택 종료 후 스마트지점 파생상품 시장 수수료율 적용되며, 선물 0.002%~0.04975%, 옵션은 0.15%~1.4% 수준 (거래금액, 매체별 상이), 상세 홈페이지 참조 ※이자를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계좌의 신용융자 정상이자율은 4.9%~9.5% 적용(기타별 소금)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4-00231호(2024.01.25 ~ 2025.01.24) | 하이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4-000-014호(2024.01.25 ~ 2025.01.24)

하이에서 시작하는 투자혜택의 중심

준비물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번호+신분증 (운전면허증 or 주민등록증)

1단계 iM하이 iM하이 설치 (앱스토어 or 플레이스토어에서 하이투자증권 또는 iM하이 검색)	2단계 iM하이 App에서 비대면계좌개설 신청하기 클릭 신행하기 >	3단계 정보입력, 본인인증 및 신분증 촬영 본인인증	4단계 하이투자증권에서 입금된 1원 입금확인 입금확인 1원	5단계 혜택 받음 준비 완료하고 거래시작하기 82,500원
---	--	---	---	---

www.hi-ib.com | 디지털컨택센터: 1588-7171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4-00231호(2024.01.25 ~ 2025.01.24) | 하이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4-000-014호(2024.01.25 ~ 2025.01.24)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증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계약)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권 투자상품은 자산가격변동, 환율변동, 신용등급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 또는 초과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계좌 전고가 유지중거금에 미달하는 경우 계약이 강제 청산될 수 있으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수료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계좌의 일반위탁수수료율은 거래금액과 매체에 따라 국내주식 0.0972%~0.4972%, 선물 0.002%~0.04975%, 옵션은 0.15%~1.4% 수준으로 적용됩니다.
- 미국주식 수수료 혜택 대상이 아닐 경우 미국주식 매매수수료는 0.25%(온라인기준)입니다. (매도시, SEC FEE 0.0008%(이벤트 시작일 기준), 제세금 별도 징수)
- 해외주식 환전 시 매매기준율 + 스프레드 0.1%수준으로 적용됩니다.
- 해외직접투자는 매매지시에 관하여 연250만원 기본 공제 후 압도소득세22%(지방세포함)가 과세됩니다. 또한 과세대상 PTP종목으로 지정될 경우매도금의 10%가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상세내용 홈페이지 참조)
- 일중매매는 거래전략 등 증권시장 전망에 대한 많은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며, 단기간 내에 상당액을 손실할 수 있고, 잦은 매매로 인한 세금 및 수수료의 과다 발생으로 수익 실현의 기회가 극히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세내용은 이벤트페이지 하단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이벤트 바로가기

직원들 안도... 동요없이 업무에 집중

“글로벌 경기 침체속 잘된 일
경영에 집중 가능해져 다행”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 부정’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선고가 나오자 삼성 직원들은 안도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재판 전만 해도 삼성 내부에서는 총수 부재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배제해선 안 된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막상 무죄 선고가 내려지자 사법리스크가 한 고비를 넘겼다는 분위기가 엮보였다.

5일 삼성은 1심 판결 직후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 회장도 판결 이후 별다른 소회 언급 없이 준비된 차량을 타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무죄 판결 이후 삼성의 회사 분위기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다. 삼성 관계자는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내부에서는 별다른 동요 없이 차분하게 업무에 집중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3년5개월을 끌어온 사법 리스크가 일단락됐다는 점에서 직원들은 내심 이를 반기는 모습이었다.

삼성 한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 침체 영향으로 가뜰이나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번 판결은) 잘된 일”이라고 말했다. 삼성의 또 다른 관계자도 “무엇보다 경영에 집중할 환경이 마련된 점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계도 논평을 통해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김재용 기자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역차별 문제, 사전규제 등 ‘주요 이슈’

규제를 규제하라

① 플랫폼법, 藥 될까 毒 될까

규제 혁신은 성장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다. 하지만 규제는 양면이 있다. 만드는 사람이 있고, 당하는 사람이 있다. 규제로 이득을 보는 집단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집단도 있다.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가 ‘규제를 규제하라’는 시리즈를 통해 규제의 양면과 각종 규제 이슈, 규제 개혁 방향 등을 살펴본다.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의 윤곽이 어떻게 드러날지 초미의 관심사다.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법 제정이 늦어지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며 초강수를 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벤처·스타트업계는 혁신과 투자 위축을 이유로 ‘강력 반대’를, 시민단체는 ‘무늬만 독점규제법’이 될 것이란 우려를 각각 내놓고 있다.

5일 공정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플랫폼법은 현재 관계부처간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등 최종 조율을 끝내고 이달 중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플랫폼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말 국무회의에서 “독과점화된 대형 플랫폼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다.

공정위는 이보다 앞서 플랫폼 관련 독과점 규율개선 임시전담팀(TF)을 꾸려 10차례에 가까운 논의를 진행한데 이어 해외의 유사 입법 사례 분석, 현장 의견 수렴 등 법 제정을 위한 절차를 밟아왔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지난달 31일 개최한 ‘플랫폼 규제 법안과 디지털 경제의 미래 토론회’에서 토론자를 토론을 하고 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尹 대통령 지시이후 법 제정 급물살 “플랫폼 폐해줄일 개선책 마련” 지시 벤처·스타트업계 “혁신·투자 위축” 참여연대 “일정 규모이상 일괄지정”

유럽연합(EU)의 경우 ‘디지털시장법(DMA)’을 제정해 지난해 5월 시행한 바 있다. 독일은 이에 앞선 2021년 1월부터 ‘경쟁제한방지법’을 통해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등에 대응하고 있다.

공정위 육성권 사무처장은 플랫폼법과 관련해 지난달 말 언론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고 최종 합의에 도달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지 않다”면서 정부안에서의 교통정리가 머지 않았음을 내비쳤다.

플랫폼법과 관련해 현재 최대 이슈는 법의 규제 대상인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와 ‘역차별’ 그리고 ‘사전규제’다.

공정위는 매출액,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배적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매출액 등 구체적인 숫자는 아직 오리무중이다. 다만 이같은 정량적 기준을 우선 고려되, 이를 넘어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정성 평가’를 병행해 명단을 최종 추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의 경우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해외 플랫폼 중에선 구글(Google), 마이크로소프트(MS), 애플(Apple),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 아마존(Amazon)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이들 중에선 공정위가 향후 발표할 매출 등 정량적 기준과 이후 정성적 판단에 따라 명단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플랫폼법으로 처음 규제하는 지배적 사업자 숫자는 5개 안팎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과정에서 국내 플랫폼만 규제하고 해외는 풀어주는 역차별 논란도 거론된다.

벤처기업협회는 최근 내놓은 관련 성

명서에서 “글로벌 사업자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해당 자료를 발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플랫폼법은 대부분 국내 플랫폼 사업자에게만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면서 “이렇게 되면 외국 플랫폼만 반사이익을 얻고, 국내 플랫폼은 역차별을 받고 글로벌 경쟁력도 약화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공정위는 “플랫폼법은 국내·외 사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반칙행위에 대해 차별없이 규율할 것”이라며 이같은 우려를 일축했다.

지배적 사업자로 국내의 경우 ‘네카오’가 가장 유력한 상황에서 해외 포털인 구글도 관련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상공회의소는 한국의 플랫폼법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벤처·스타트업계는 ‘사전규제’가 시

장의 혁신성이나 기업의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정위는 플랫폼법을 추진하면서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자사 플랫폼 이용자에게 경쟁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행위) 제한 ▲최혜대우 요구와 같은 ‘4대 반칙행위’를 규율하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플랫폼 기업이 워낙 빠르게 성장하다 보니 이와 같은 독과점 행위를 사전에 막지 않으면 안된다는 판단에서다.

가천대 전성민 교수는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지난달 31일 개최한 ‘플랫폼 규제 법안과 디지털 경제의 미래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와 “사전 규제 방식은 혁신과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온라인 플랫폼은 고객의 피드백에 기초해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사전에 법으로 규정된 방식으로 서비스를 해야한다면 신규 서비스 개발이 어렵고, 규제로 인한 경쟁 제한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은 줄고 후생도 저해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이지영 전문위원은 “플랫폼법을 통한 이중규제는 한국 스타트업들에 대한 해외 투자도 위축되게 만들 것이다. 성장중인 스타트업이 향후 플랫폼법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성장을 위한 협업에도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들의 생각은 또 다르다.

참여연대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쿠팡, 배달의민족이 빠진 플랫폼법을 누가 납득하겠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영향력을 가진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일괄지정하고, 더 이상 시장지배력을 기반으로 한 불공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공정금융’ 강조… 이복현 “책임 미루는 금융회사 퇴출 불사”

〈금융감독원장〉

금감원장, 2024년 업무계획 발표 “불완전판매 피해 없도록 할 것” “소비자 등 사회에 전가 용납 안해”

금융감독원이 무리하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투자하고, 홍콩 ESL 불완전 판매에 나서는 등 단기 이익을 쫓아온 금융회사들에 수위높은 경고장을 날렸다. 올 한해 ‘공정한 금융’을 화두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금융회사들은 퇴출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4년 금감원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금융회사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국민들께서 모은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증식시키는 일”이라며 “올해부터는 고객의 이익을 외면하고 금융기관으로서의 당연한 책임을 회피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시장에서의 퇴출도 불사하겠다는 원칙 하에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부동산PF에서 파급된 문제가 시장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자금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2분기 중 개편된 기준에 따라 사업장을 재분류하여 중당금을 추가 적립토록 하는 한편, 하반기 중에는 사업장별 경·공매 등 부실정리 또는 사업재구조화 계획 등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결산 점검을 실시, 여력이 있는데도 중당금을 쌓지 않고 배당·성과급으로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엄격히 지도할 계획이다. 무분별한 만기연장이나 연체유예 등을 통해 손실 인식이 지연되지 않도록 ‘대주단 협약’ 개정도 추진한다.

이 원장은 “우리 경제의 뇌관인 부동

산 PF에 대해서는 면밀한 사업장 평가 등을 통해 위험요인을 철저히 점검하여 구조조정 및 재구조화가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유도하겠다”며 “연내에 부실 사업장의 정리 및 부실우려 사업장의 재구조화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파생결합증권(ELS)와 관련해서는 불완전 판매 금융회사에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합당한 수준의 피해구제를 추진하는 한편, 고위험 상품 판매규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다시는 후진적인 형태의 불완전판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소비자를 위협하는 불법·불건전행위 인지 시 검사인력을 즉시 집중 투입하고 통합 연계검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조기에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이어진 글로벌 투자은행(IB) 등의 불법 공매도 사태와 관련한 집중 단속에도 나선다. 금감원은 추가 적발된 글로벌 IB 2개사를 포함, 10개사에 대

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조사 완료 건부터 순차적으로 제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공매도 위반으로 적발된 글로벌 IB의 아태지역 본부 대부분이 홍콩에 소재하고 있어, 홍콩 금융감독당국과 공조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조만간 홍콩 감독당국을 방문,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 한해 ‘공정한 금융’을 화두로 혁신과 소비자를 위한 노력 없이 규제(라이선스) 차익을 향유하거나 소비자의 몫을 가로채는 금융사를 엄격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금융사는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단기 실적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며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는 부동산 PF 집중 투자, ELS 불완전판매를 통한 과도한 성과급·수수료 수취 등 리스크 관리를 소홀한 채 단기적 이익은 사유화하고 뒤따를 위험을 소비자 등 사회에 전가하는 행태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KB 금융그룹

국민의 평생
금융 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손님 여러분, **KB국민은행** 비행기가 대한민국 제1관문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KB국민은행이 인천국제공항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여객터미널 어디서든 은행 업무와 환전은 물론,
여행자보험 서비스까지 편리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KB국민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늘 여러분 곁에 함께 하겠습니다



KB국민은행 ATM이 인천국제공항 하늘에?

인천국제공항 입점 가상옥외광고 공개!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초현실 광고를
지금 바로 QR코드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여행 갈 때 세상 빠른 환전 방법!

KB스타뱅킹 환전 신청 시 **인천국제공항 환전소 전용 QR수령증** 제공!
환전 서비스를 더 쉽고 빠르게 이용하세요!

*KB스타뱅킹 환전 신청은 24시간(토,일,공휴일 포함) 가능하나, 온라인 영업일자 전환시간(매일 00:00~00:05) 및 매월 셋째주 일요일 00:00~07:00은 시스템 조정 작업으로 인해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KB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서비스 가입 전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0365호(2024.02.01.), 광고물 유효기간 2024.02.01.~2024.12.31.까지

KB 국민은행

이재명,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택

“위성정당 반칙 대응·준연동제 취지 살려 승리의 길 찾을 것”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50% 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

“위성정당 등장 막지 못한 점 사과”
소수정당 몫 배려하면 비판 해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대 총선에 적용될 비례대표 선거제도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택한 가운데, 이 대표가 제안한 ‘통합형비례정당’에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여러 세력이 합류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이 대표는 5일 오전 광주광역시 북구 5·18민주묘지 민주신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준연동제는 ‘불완전한 지만 소중한 한결음’”이라며 “과거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며 당 의원들이 자신에게 위임한 비례대표제 실시 방식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지역구에서 의석수를 다수 확보한 정당이 비례대표제 의석수를 확보할 수 없다는 준연동형제의 특성 때문에, 20대 총선에선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미려한국당’과 ‘더불어시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참배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당’이라는 비례 위성정당을 창당해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한 바 있다. 득표율과 의석수를 일치시켜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위성정당의 등장에 거대 양당은 많은 질타를 받은 바 있다.

21대 국회에서 4년이란 시간이 있었음에도 거대 양당 주축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위성정당 방지’ 입법을 합의 처리하지 못했다는 지적엔 변명할 수 없다.

이 대표도 “반칙이 가능하도록 불완전한 입법을 한 것을 사과드리고, 약속

드린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린다”며 “결국 준(準)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사과드린다”며 당 지도부와 함께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여당과 달리 이 대표는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비례정당’을 제안했다. 이 대표의 회견 내용에 따르면, 민주당이 추진하던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소수정당을 위한 비례대표 의석을 30% 할당하거나 권역별 최소득표율 3%에 1석을 우선배정하는 방

안을 포함하며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을 배려하려고 했다.

이 대표가 위성정당 등장을 막지 못했음에도 비례정당에 소수정당 몫을 다수 배려하면 비판은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1대 총선에 더불어민주당 비례명부에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조정훈 시대전환(현 국민의힘) 의원을 올려 당선시킨 바 있는데, 지난 총선보다 소수정당을 위한 배려 몫이 많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연합정당 ‘새진보연합’을 출범한 옹혜인 의원은 “정권심판과 역사의 진보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통합형비례정당을 추진해 승리를 만들어내자는 이 대표의 제안을 환영한다”며 “제22대 국회가 이뤄내야 할 개혁과제를 중심으로 수평적이고 호혜적인, 그리고 개혁적인 연합을 구축하자”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심판을 넘어, 거부권통치도 끝장내고, 시행령 통치도 멈춰세우고, 시대의 변화에 따른 개헌을 이루는 큰 승리를 향해 담대하게 연합하자”고 제안했다.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대표는 “병립형 회귀가 아닌,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를 주장해온 녹색정의당의 입장으로

서는 최악은 피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여긴다”면서 “물론 위성정당방지법 제정을 통해 준연동형 비례제도의 취지를 온전하게 살리지 못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냈다.

민주당 탈당과 이원욱 무소속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이 대표의 결정에 대해 “완전히 흡수”라며 “4년전 기본소득당이나 시대전환 등 나머지 당을 합해서 위성정당을 만든 것과 지금이랑 뭐가 다른가”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왜 5000만 국민이 이재명 한 사람의 기분과 눈치를 봐야 하는가. 선거제를 앞두고 왜 한 사람의 의사에 모든 사람이 집중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제 민주당과 연합이 가능한 세력을 찾는 데 골몰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몫으로 당선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검찰 수사권 조정 국면 등에서 민주당을 비판하며 국민의힘과 합당한 전력이 있어 고심이 거듭될 예정이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與 영입인재, 험지로… 고동진은 신청 ‘아직’

〈前 삼성전자 사장〉

수원·화성·군포 등 野 텃밭에 도전장
고동진, 전략공천·비례대표 예상
대통령실 인사는 양지행… 대조 평가

국민의힘이 공천 신청 접수를 마무리한 가운데, 여당 영입인재들이 야당 강세 지역에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아직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은 영입인재들도 있어, 이들은 당에서 전략공천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선거에 나설 전망이다.

5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영입한 진종오 대한체육회 이사까지 더하면 국민의힘에 입당한 영입인재는 총 29명이다.

현재 지역구 5곳이 모두 더불어민주당 현역의원이 있는 경기 수원 지역의 경우 김현준 전 국제성장(수원갑),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수원병)과 이수정 경기대 교수(수원정)이 신청한 상태다.

수원갑의 현직 의원은 민주당 김승원 의원이며, 수원병은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다. 수원정의 경우엔 박광온 전 원내대표가 4선 도전을 공식화한 곳이다. 최근 영입된 40대 청년인재 3명 역시 모두 민주당 텃밭인 화성, 군포 등에 연달아 출사표를 냈다. 한정민 삼성전자 DS부문 메모리사업부 연구원은 경기 화성읍에 출마한다. 이곳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원욱 미래대연합 의원의 지역구다. 이 의원은 해당 지역에서 내리 3선을 했다. 다만 이곳은 인구 상한을 넘어 ‘화성정’으로 분구될 가능성이 높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3차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정민 연구원과 함께 영입된 이영훈 전 한국청년회의소(JC) 중앙회장은 경기 군포에 출마 의사를 밝혔다. 군포는 이학영 민주당 의원이 3번 연속 당선됐다. 역시 같은 40대 청년인재인 이상규 한국청년임대주택협회장은 서울 성북구에 공천을 신청했다. 1988년 이후 총선에서 성북읍에서 보수정당 후보가 당선된 적은 두 번 뿐이다.

이외에도 서울 지역에 도전장을 낸 영입인재들이 더 있다. ‘이재명 저격수’ 구자룡 비대위원은 서울 양천갑 공천을 신청했다. 양천갑은 원희룡 전 장관이 당선되는 등 보수가 강세였지만, 최근 두 번의 총선에선 민주당이 의석을 가져갔다. 해당 지역은 국민의힘 정미경·조수진 전 최고위원이 출마 의사를 표한 곳이기도 하다.

서울 강북갑에는 전상범 전 부장판사가 공천을 신청했다. 강북갑은 전준호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다. 이곳 역시

1996년 지역구가 신설된 이후 치러진 일곱 번의 총선에서 정양석 전 의원이 18대·20대 총선에서 당선된 것 말고는 모두 민주당 계열 정당 후보가 이겼다.

다만, 모든 영입인재가 공천 신청을 한 것은 아니다.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아직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전략공천이나 비례대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치 신인인 영입인재들의 험지 출마는 ‘양지’로 향한 대통령실 일부 인사들과 대조된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표적으로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서울 강남을), 주진우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부산 해운대갑), 임종득 전 안보실 2차장(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 등이 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통령실은 이날 “대통령은 누구도 특별하지 않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을 당에 누차 당부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서예진 기자 syj@

與 “메가서울·경기북도 분도 적극 추진”

한동훈, 총선 수도권 표심 공략

국민의힘이 4·10총선에서 수도권 표심을 잡기 위해 ‘메가서울’과 ‘경기북도 분도’를 동시에 들고 나왔다.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처음 ‘메가서울’을 언급할 때는 ‘경기북도 분도’는 여당 내에서 언급이 없었지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두 가지 주장을 동시에 내세운 것이다.

한 위원장은 지난 4일 경기 구리에서 “제가 비상대책위원장이 되기 전까지는 국민의힘은 김포 등의 서울 편입을,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분도를 주장하면서 양립 불가능한 것처럼 맞서왔다”면서 “이제 국민의힘은 서울 편입도 경기 분도도 해당 주민의 뜻을 존중해서 모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 의정부를 출마 의사를 밝힌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5일 “당이 추진하기로 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에 힘을 보태겠다”며 “경기 분도를 통한 경기 북부의 균형 발전은 대한민국에 새로 도약하는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서울 편입을 희망하는 경기도 내 일부 지역은 서울 편입을, 경기북부 특별자치도를 희망하는 지역은 분도를 통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며 “메가시티와 경기 분도는 양자택일이라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양립 가능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 등 경기 분도 문제와 관련해서 한 위원장에게 관련 여론은 물론 분도 의견을 개진했다”며 “국민의힘과 한 위원장이 추



경기 의정부를 출마 의사를 밝힌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5일 “당이 추진하기로 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정 대변인의 모습. /정광재 대변인

진하는 경기 분도 문제를 적극 돕겠다”고 했다.

그간 정치권에서는 비대해진 경기도를 남북으로 나눠 행정 비효율을 없애고, 도민의 행정 편의는 물론 남북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부 지역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메가서울’ 공약과 ‘경기북도 분도’ 공약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TF’를 구성했다.

TF는 당 전략기획부총장인 배준영 의원과 ▲김종혁 경기고양병 당협위원장 ▲김태섭 구리시 지속발전위원회 부위원장 ▲김상균 전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유계순 3기신도시 광명시흥지구 주민대책위 총무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 ▲이인화 도봉건축사무소 대표 ▲정경석 미사강변총연회 대표 등 8명으로 구성된다. /서예진 기자



와인픽스 이케아 광명점 GRAND OPEN 2024.02.08

OPEN EVENT
02.08 - 02.28

와인, 위스키, 사케, 맥주, 글라스, 치즈 등 주류와 관련된 2,500여 종의
상품을 만날 수 있는 와인픽스 이케아 광명점에 초대합니다.

INFO

영업시간

평일 | 11:00 - 20:30
주말/공휴일 | 10:00 - 21:00
* 설날 당일은 휴점합니다.

인스타그램



블로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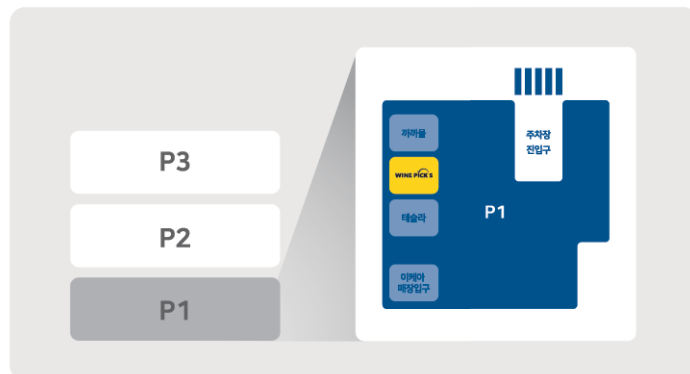


TEL

02-899-4777

찾아오시는 길

경기도 광명시 일직로 17 이케아 광명점 P1 주차장



선물 최대 50% 할인…카드사 명절 마케팅 후끈

삼성카드-이마트·홈플러스와
선물세트 최대 50% 즉시할인

국민카드-롯데마트·세이브존
실적 따라 상품권 최대 50만원

롯데카드 항공권·스키장 할인

카드업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 세트, 해외여행 할인행사를 마련했다. 고물가 시대 주머니 부담을 덜어낼 수 있는 만큼 관련 혜택을 살펴보는 것이 요구된다. 카드사들 또한 첫대목인 만큼 점유율 확대를 꾀하겠다는 방침이다.

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설을 앞두고 카드사 7곳(신한·삼성·KB국민·롯데·하나·비씨·NH농협카드)이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최대 50%할인 혜택까지 내걸면서 '지갑 열기'에 매진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설차례상 비용은 평균 30만원으로 작년보다 4.9% 상승했다.

◆ 선물 세트 할인 최대 50% ↓

삼성카드는 이마트 및 홈플러스와 손을 잡았다. 오는 10일까지 이마트에서 행사상품을 구매하면 최대 40%까지 즉시할인을 제공한다. 행사상품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결제금액에 따라



명절을 맞이해 카드업계가 국내외 여행관련 혜택도 잇따라 강화하고 있다. /뉴시스

최대 50만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 및 즉시 할인혜택을 마련했다.

오는 29일까지 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에서 행사상품을 구매하면 20%를 즉시 할인한다. 이어 홈플러스에서 행사상품을 고르면 최대 50% 즉시할인을 적용한다.

KB국민카드 사용자라면 롯데마트와 세이브존을 눈여겨 볼 수 있다. 오는 10일까지 명절선물 세트를 최대 30% 할인한다. 구매 실적에 따라선 상품권을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한다. 이어 오는 9일까지 세이브존에서 선물 세트를 구입하면 30%를 아낄 수 있다. 할인 품목은 35개로 구성했다.

하나카드는 농협하나로마트, GS더

프레시를 포함한 6곳에서 선물 세트 할인을 지원한다. 할인율은 최대 40%며 상품권을 최대 600만원까지 제공한다.

비씨카드 가입자는 오는 12일까지 이마트에브리데이와 GS더프레시에서 명절행사상품을 최대 50% 할인된 금액에 구매할 수 있다. 이어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에서는 선물 구매 비용을 최대 40%까지 절감할 수 있다.

◆ 항공권·스키장 등 여행관련 혜택

국내의 여행관련 혜택도 잇따라 강화하고 있다. 롯데카드는 마이리얼트립에서 해외투어 티켓 및 해외 항공권 결제 시 최대 10%를 할인한다. 이어 하나투어에서는 해외 항공권 가격의 최대 10%를 즉시 낮출 수 있다.

하나카드는 전국 7대 스키장 렌탈·리프트권을 최대 50% 할인한다. 이어 하나투어와 노랑풍선에서 최대 12개월 무이자 할부를 지원한다. 현대백화점 면세점 인천공항점에서는 최대 20만원 할인 혜택을 지급한다.

신한카드는 해외여행과 국내여행객을 모두 사로잡겠다는 구상이다. 각 업종별 미션을 달성하면 경품을 증정하는 '럭키드래곤' 행사를 준비했다. 미션은 ▲전통시장·착한가격업소서 3만원 이상 이용 ▲해외(온·오프라인)에서 5만원 이상 이용 ▲주요 온라인몰에서 10만원 이상 이용 등 총 3가지다.

미션을 모두 달성한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을 준비했다. 경품은 ▲청룡 골드바 10돈(1명) ▲삼성전자 갤럭시 S 24(2명) ▲LG전자 스탠바이미(3명) 등이다. 1개 이상 미션을 수행한 고객 중 2024명을 추첨해 스타벅스 커피쿠폰을 지급한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설날은 신년 첫 번째 대목인 만큼 연간 점유율의 기준점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각 카드별 행사 가맹점, 할인 한도 등의 차이가 있으니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시 한번 점검하길 권장한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카드 News



모니모A 카드 플레이트.

/삼성카드

삼성카드

이용할수록 혜택 ↑ 모니모A 카드 출시

삼성카드가 플랫폼 강화에 초점을 맞춘 신상품을 출시했다.

◆ 로그인하면 포인트 적립 혜택 ↑

삼성카드는 '모니모'를 이용할수록 혜택을 확대하는 '모니모A 카드'를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국내외 이용금액의 0.5%를 모니머니 리워드로 제공한다. 단 전월 모니모를 7일 이상 방문하면 적립 포인트로 1%로 상향한다.

모니모에 7일 이상 로그인한 고객에게는 모니머니 적립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 생활필수영역에서는 월 최대 2만 포인트를 추가로 적립한다. 이어 혜택 대상 보험 결제 시 9% 추가 적립 혜택을 월 최대 1만 포인트 한도로 지급한다.

생활필수영역, 보험상품 리워드 추가 적립과 스타벅스 할인 등은 전월 30만원 이상 이용시 적용한다. 연회비는 국내전용, 해외겸용(마스터) 모두 1만원이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삼성금융네트웍스의 금융 통합앱 모니모를 자주 이용하시는 고객을 위해, 모으는 재미를 담은 '모니모A 카드'를 출시했다"고 말했다.

KB국민카드

착한가격업소 결제 2000원 캐시백 제공

KB국민카드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동참한다.

◆ KB페이, 인근 착한가격업소 검색 기능

KB국민카드는 착한가격업소에서 KB페이를 1만원 이상 결제하면 2000원 캐시백을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KB페이 위치기반 서비스를 활용하면 사용자 인근 착한가격업소를 검색할 수 있다. KB페이 전체메뉴에서 이벤트 항목에 진입한 뒤 '우리동네 착한가격업소'를 소개합니다' 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다.

착한가격업소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물가안정 모범업소다. 지난해 기준 전국 7172곳을 선정했다. ▲가격 ▲위생 ▲청결 ▲친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채택했다는 설명이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향후 소상공인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착한가격업소 이용고객의 소비 데이터, 상권 분석 데이터를 무상 제공하는 등 선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포스증권 인수 나선 우리금융… 오늘 컨콜서 공식화 하나

6일 실적발표 컨퍼런스콜
인수인지 발표 가능성 높아

비은행 강화를 위해 증권사 인수를 타진하고 있는 우리금융그룹이 한국포스증권을 인수 후보로 검토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오는 6일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상상인저축은행과 같이 인수를 공식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그룹은 매물로 나온 한국포스증권 인수를 검토 중이다.

한국포스증권은 지난 2013년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 '펀드온라인코리아'로 설립한 소형 온라인 증권사다. 온라인에서 다양한 펀드 상품을 비교하고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펀드슈퍼마켓'으로 불리며 출범했지만 뚜렷한 실적을 내지 못했고 2018년 말 한국증권금융에 인수된 뒤 약 6년 만에 M&A



우리금융 본사 전경.

/우리금융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 인수 가격은 500억원 안팎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증권금융은 한국포스증권의 지분 51.68%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다. 한국증권금융에 이어 금융투자 스타트업인 파운트가 약 28%로 2대주주며 자

산운용사들과 유관기관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계열사 인수에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사업부문이 증권사인 만큼 이번 한국포스증권 인수에 시장의 관심이 높다.

한국포스증권의 경우 자기자본이 지난해 3분기 기준 699억원으로 소형 증권사로 당초 중형급 이상을 원했던 우리금융 조건과는 다소 거리가 멀다.

다만 포스증권이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 신탁업(IRP) 등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어 신규 라이선스 발급 없이 우리종합금융과의 합병을 통해 시너지를 확대할 수 있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하면 자기자본은 1조1000억원 규모다. 이는 증권사 순위 기준 11위~20위권 중형 증권사 수준이다.

임종룡 회장은 지난해 그룹 경영전략 워크숍에서 지난해 증자를 완료한 우리금융의 역량 강화를 통해 증권업 진출에 대비하겠다고 언급하며 증권사 인수에 대한 고삐를 당긴 상태다.

시장에서는 오는 6일 개최되는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국포스증권 인수를 선언할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다.

앞서 상상인저축은행 인수설 당시에 우리금융은 '사실무근'이라며 해명했지만, 결국 지난해 3분기 실적발표회에서 상상인저축은행 인수 검토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우리금융 내부 관계자는 "한국포스증권 인수에 대해 회사에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는 분위기다"며 "상상인저축은행과 같이 인수 의지를 실적발표회에서 공식화할 가능성도 높아 이번 실적발표회에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LH 거여새마을, 공공재개발 최초 사업시행 협약

상반기 시공자 선정 신속 마무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26일 공공재개발사업 최초로 주민대표회의와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원자재·인건비 인상 등으로 얼어붙은 시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거여새마을 구역은 입지여건과 용적률 상향 및 기금 지원 등 공공재개발 사업 장점으로 다수 시공사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

거여새마을은 강남3구에서 유일하

게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다. 공공재개발사업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민대표회의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호간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는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해 주민과 함께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이번 협약체결에 따라 LH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신속히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상반기에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거여새마을은 강남3구 내 위치한 공공재개발사업 구

역으로, 공공재개발사업 중 가장 빠르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인근 지하철 5호선 거여역과 신설 예정인 위례트램선 101역(가칭)을 이용할 수 있다. 거여새마을 구역은 기존 1종 일반주거지역이 구역의 67%를 차지해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었으나 용도지역 상향으로 용적률이 282%까지 확보돼 오는 2027년에 최고 35층의 공동주택 1654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인근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와

위례신도시를 연결하는 지역적 연계 거점으로써 노후되고 열악한 주거지 일대에 양질의 주택공급 뿐만 아니라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장위9도 최근 L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주민대표회의의 구성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시공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중화5 정비구역 지정, 천호A1-1 및 신월7-2 도시계획 수권소위원회 심의 통과 등 공공재개발사업 1차 후보지 12곳 중 7곳이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해 공공재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이규성 기자

韓 기업 ‘재생에너지 강국’ 진출 속도

‘수소생산 유리’ 호주와 협력 확대

SK E&S

가스전 프로젝트·CCS 사업 협력

포스코홀딩스

그린수소 생산 사업 개발 집중

전 세계가 에너지 전략을 수소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이 호주와 협력을 통해 선두를 차지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과 수소 생산에 유리한 환경을 갖춘 호주는 국내 기업에 전략적 파트너로 떠오르고 있다.

5일 IEA(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글로벌 수소 수요가 지난 2021년 9400만톤에서 2050년 5억3000만톤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전체 에너지 중 수소 비중은 2050년까지 14%로 확대될 것으로 진단했다.

특히 호주는 자연 부국으로 수소 생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세계 4위 갈탄 생산국(2015~2015, IEA)이며 천연가스는 국내 석탄, 우리나라 다음으로 매장량이 많은 자원이어서 수소 생산의 규모 확대를 이루기 용이하다. 또한 수소를 생산하면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기존의 유전·가스전 등의 지층에 매장해 공기 중 배출을 막을 수 있는데, 호주는 이러한 매장 후보지로 적합한 지역이 많다.

이 외에도 북아프리카를 비롯한 주요 수출 예상국 중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장 인접한 국가라는 강점도 있다. 상



호주 에너지 기업 산토스가 운영하는 다윈 LNG 터미널 내 이산화탄소 분리 공정을 위한 탄소 포집 설비가 설치되어 있다. 사진은 흡수탑 모습. /SK E&S

대적으로 적은 운송비가 경제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호주가 수소 수출국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은 호주와 협력을 넓히고 있다. 주요 협력 형태는 호주의 정부 지원 아래 호주 내 수소 생산시설을 건설하고, 국내로 운송하는 프로젝트 중심의 협력과 수소 관련 기술협력 등으로 이루어진다.

SK E&S는 호주 정부와 가스전 프로젝트, 탄소 포집·저장(CCS) 사업 협력에 매진 중이다. SK E&S는 지난 2012년부터 개발에 참여한 바로사 가스전에 이미 상용화된 CCS 기술을 적용해 저탄소 액화천연가스(LNG)를 생산하고, 연평균 약 130톤을 국내로 도

입해 블루수소 생산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회사는 이를 통해 LNG 수급 안정과 에너지 안보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포스코홀딩스는 서호주에서 저탄소 철강 원료인 HBI(Hot Briquetted Iron) 생산을 위한 그린수소 생산 사업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회사는 지난 2023년 10월 호주 퍼스에서 프랑스 재생에너지 기업 엔지와 공동조사 합의를 서명하고 서호주 그린수소 생산 사업 개발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다. 양사는 그린수소 생산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 부지 확보, 수전해 설비를 비롯한 개발 컨셉 수립 및 호주 정보 자금 프로그램 지원 등에 관한 협업을 수행한다. 또한 포스코그룹은 호주 HBI 생산에 필요한 수소 환원 비율을 확대해 나가고, 2050년까지 호주에서만 수소 생산 200만톤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러한 기업들의 노력에 더해 정부의 역할이 수소 협력사업의 중요한 측면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주요국과 호주 간 수소협력사업에 대한 각 정부의 지원정책, 사업 특징 등을 참고하는 것이 국내 수소사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한다. 특히 일본과 호주는 수소생산 협력이 다른 국가에 비해 일찍 시작돼 진행 단계와 프로젝트 수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여주고 있어, 이를 기반으로 한 국내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삼성전자 TV 8개 시리즈 ‘탄소저감’ 인증

독일 TÜV라인란드 인증 수여
탄소발자국 수상제품 대상 평가

삼성전자 TV가 탄소 배출 감축 성과를 인정받았다.

삼성전자는 독일 TÜV라인란드로부터 TV 8개 시리즈로 ‘탄소저감’ 인증을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

탄소저감은 제품 전 생애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해 부여하는 ‘탄소발자국’을 인증받은 제품을 대상으로 추가로 탄소 발생량을 줄인 제품에 수여한다.

삼성전자는 2021년 영국 카본트러스트로부터 Neo QLED로 4K 이상 해상도를 가진 TV 최초로 탄소저감 인증을 획득한 이후, QLED·크리스탈 UHD·라이프스타일 TV·OLED·모니터·사이니지까지 인증 대상 제품군과 규모를 매년 확대하고 있다.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김용재 부사장(왼쪽)과 ‘TÜV 라인란드(TÜV Rheinland)’ 프랭크 홀츠만(Frank Holzmann) 전기전자부문 글로벌 부사장(오른쪽)이 ‘탄소 저감’ 인증 수여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올해 삼성전자는 사운드바 등 신규 제품군을 추가해 60개 이상 모델의 탄소 발자국 인증 또는 탄소저감 인증을 획득할 예정이다.

/김재용 기자 juk@

롯데에너지머티, 고체전해질 생산 첫발

150억 투자 파일럿 설비 착공식
연 70톤 황화물계고체전해질 생산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가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핵심소재인 고체전해질 생산 설비 구축에 나서며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낙점했다.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는 전북 익산 2공장에 150억원을 투자해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소재인 ‘황화물계 고체전해질’ 생산을 위한 파일럿 설비 착공식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018년부터 고체전해질 연구를 시작한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는 익산 2공장 부지 1,619㎡를 활용해 오는 6월 말까지 연산 최대 70톤 규모의 파일럿 설비를 갖출 계획이다. 이어 올해 연말까지 본격 가동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국내의 전고체전지 관련 기업에 샘플을 공급하고 2026년 양산을 목표로 1200톤 규모의 생산설비를 확장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전고체 배터리는 차세대 배터리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로 크게 황화물계, 산화물계, 폴리머계로 나뉜다.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는 이 중 물성이 우수한 황화물계 고체전해질을 저비용 건식합성 공법 및 특수 습식합성 공법을 적용해 고이온전도 나노급 제품 개발을 완료했다.

해당 제품은 수분안정성이 높아 고체전해질 및 전고체전지 제조시 드라임 운송비를 낮출 수 있다. 아울러 기존 LIB 드라이룸 공정 조건을 유지할 수 있어, 별도 투자 없이 현재 공정 조건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김연섭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대표이사는 “많은 배터리 기업과 소재사들이 고체전해질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하며 업계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우리만의 차별화된 품질과 원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주요 고객사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K-방산, 최신 무기·기술로 중동시장 공략

한화 방산계열사 통합 부스 마련
기아·현대로템도 전략모델 선보여
LIG넥스원 대공 방어무기체계 공개

국내 방산업계가 지정학 위기로 안보 수요가 급증하는 중동 시장 공략에 속도를 높인다. 한화그룹을 비롯해 HD현대중공업, 현대로템, LIG넥스원 등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방산전시회를 통해 방산 기술 핵심 역량을 대거 공개하고 K-방산의 현지 수출 확대에 집중한다.

5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4일부터 8일까지(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국제 방산 전시회 ‘월드 디펜스 쇼 2024’에 한화, HD현대중공업, 현대로템, LIG넥스원 등 국내 주요 방산업체들이 참가해 자체 기술력을 선보인다. 2022년에 이어 올해 2번째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사우디아라비아 방위산업청이 주관하며 세계적인 방산업체들이 주력 상품을 가져오는 인지도 높은 행사다. 이번에도 40여개 국가, 750개 이상 업체들이 참여한다.

우선 한화 방산계열사는 통합 부스에서 육·해·공 전략무기를 망라해 전시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9 자주포, 다연장로켓 천무 등 주력 제품을 내놓았다. 한화오션은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 모델을 가져왔고 한화시스템은



‘WDS 2024’ 기아관에 소형전술차량 기갑수색차(왼쪽부터), 중형표준차량 4X4, 수소ATV 콘셉트가 전시된 모습

대공방어용 다기능레이더를 공개했다. HD현대중공업도 수상함과 잠수함 모형을 통해 최신 기술을 자랑한다.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기아와 현대로템도 전략 모델을 선보였다.

기아는 ‘평화를 지키는 모든 이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모빌리티’를 주제로 참가해 중형표준차량을 해외 최초로 공개했다. 중형표준차량은 최대 16명이 탑승해 1m 깊이의 하천을 통과할 수 있는 차량으로, 사용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개발될 수 있어 고객 맞춤형 제작이 가능하다. 기아는 중형표준차량의 기본 모델인 4X4 차량과 함께 프레임과 파워트레인만 장착된 베어사시 차량을 선보였다.

현대로템은 지상 무인 플랫폼 라인업을 앞세웠다. 중동 시장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다목적 무인차량과 디펜스 드론을 포함해 사막색으로 도색된 중형 다목적 무인차량을 전시했다. 또 지난해 서울 아텍스에서 처음 공개된 K2 전차도 배치됐다.

LIG넥스원은 지대공 요격체계 천궁 II,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 신궁 등 대공 방어무기체계를 공개했다. 또 대포병탐지레이더-II, 한국형 GPS 유도폭탄 KGGB, 2.75인치 유로로켓 비공, 보병용 중거리 유도무기 현궁 등 육·해·공 첨단 무기체계를 소개했다.

또 LIG넥스원은 현대로템과 함께 무인지상차량 플랫폼에 임무 유형별 유도무기 및 안티 드론 체계 등을 결합한 유무인복합 솔루션을 소개하며 공동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양성운 기자 ysw@

한국엔컴퍼니 작년 매출·영업이익 성장

조현범 글로벌 성장전략·투자 효과
전년비 매출 0.1%, 영업이익 3.2% ↑

한국엔컴퍼니그룹(구 한국타이어그룹)의 사업형 지주회사 한국엔컴퍼니가 2023년 글로벌 연결 경영실적 기준 매출액 1조 970억원과 영업이익 2530억원, 영업이익률 23.1%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매출액 0.1%, 영업이익 3.2%가 증가한 수치다.

조현범 한국엔컴퍼니그룹 회장이 그룹 전체 차원에서 추진 중인 글로벌 프리미엄 성장 전략과 연구개발 투자가 납축전지 배터리 사업부문을 담당하는 에너지 솔루션 사업본부에서도 가시적 성과를 드러내며 2023년 4분기 매출액 및 영업이익 모두 전년동기 대비 큰 신장세를 보였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프리미엄 상

품인 AGM(Absorbent Glass Mat) 배터리 판매가 지속 증가해 매출 성장에 기여했다.

또 지주사로서 주요 계열사인 한국타이어의 지분법 이익 증가 등 요인으로 수익성이 개선됐다. 한국타이어는 세계 최초 풀라인업 전기차 전용 타이어 브랜드 ‘아이온(iON)’ 세그먼트 확대, 슈퍼가 및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 중심의 신차용 타이어 공급 강화 등 글로벌 타이어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한국엔컴퍼니 관계자는 “올해는 AGM 배터리의 생산 및 판매를 지속 확대해 본원적 비즈니스 경쟁력을 제고할 것”이라며 “리튬이온전지(LIB, Lithium Ion Battery) 개발 등 미래 신성장 동력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주행·디자인·첨단기능까지… 완벽한 ‘집합체’



벤츠 신형 E-클래스

제어·인포테인먼트 등 기능 진화
중앙서 조수석까지 스크린 연결
내비게이션 ‘티맵’ 하반기 적용
부드러운 주행감·연료 효율성 ↑

‘국내 최초 수입차 단일 모델 20만대 돌파, 하루 100대 넘게 팔린차, 8년 연속 수입차 판매 1위’

메르세데스-벤츠의 상징적인 모델 E-클래스가 국내 시장에서 세운 기록들이다. E-클래스는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럭셔리 세단의 고급스러움의 정수를 보여준 모델이기도 하다. 특히 최근 시승을 통해 만난 11세대 E-클래스는 고급스러움을 넘어 까다로운 한국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한 노력이 담겨 있다. 한국소비자들이 E-클래스에 열광하는 이유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달 31일 서울역을 출발해 경기 파주까지 편도 65km 구간을 E클래스(E300 4MATIC 익스클루시브)의 시승을 진행했다.

신형 E-클래스는 주행성과 디자인은 물론 첨단 기능을 대거 적용했다.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라고 불



메르세데스 벤츠 E300 4MATIC 익스클루시브 전 측면.

/양성운 기자

러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각종 차량 제어 및 인포테인먼트 기능이 진화했다.

우선 차량에 탑승하면 가장 먼저 눈길을 사로잡는건 중앙에서부터 조수석까지 연결된 스크린이다. 차량에 탑재된 MBUX 슈퍼스크린은 중앙 디스플레이와 조수석 디스플레이를 이어 제작됐다. 조수석 탑승객은 디스플레이를 통해 주행중에도 유튜브나 웨이브 등 영상 콘텐츠 시청은 물론 화상회의나 멜론, 애플 뮤직, 앵그리버드 게임 등 다양한 앱을 이용할 수 있다. 영상 콘텐츠의 경우 운전자가 모니터를 바라볼 경우 화면이 보이지 않도록 설

계해 안전성을 높였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인터넷을 사용하려면 스마트폰 등 별도 기기와 따로 테더링을 해야한다는 점과 국내 도로 상황에 최적화된 내비게이션 ‘티맵’은 올 하반기부터 적용된다는 점이다.

운전자가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패턴을 적용할 수 있는 ‘루틴’도 새롭게 추가됐다. 실내 온도와 시트 열선, 통풍 등을 설정해 편의성을 높였다. 실제 시승 전 주행 중 11분 후 엠비언트 라이트 색상 변화, 시속 100km 초과시 섀시오프 오픈, 외부 온도 7도 미만시 시터 히터 작동 등을 설정했다. 주행 중 별도의 행동을 취하지 않아도 차량 스

스로 상황에 맞춰 작동하면 운전자의 불편한 움직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했다.

주행성은 부드러움과 편안함 그리고 필요에 따라 거침없는 매력까지 갖추고 있었다. 특히 11세대 E-클래스는 벤츠의 고급스럽고 정숙한 주행 성능을 완벽하게 담았다.

출발시 매끄러운 가속을 이어갔으며 제동도 운전자가 원하는 만큼 빠르게 반응했다. 고속 구간에서도 부족함 없이 운전자가 원하는 만큼 주행을 이어갔다. 차량에 탑재된 4기통 가솔린 엔진(M254)이 최대 출력 258마력과, 최대 토크 40.8kg·f·m의 성능을 제안하고, 동시에 48V 온보드 전기 시스템은 부드러운 주행감과 연료효율성을 극대화했다. 여기에 노면소음과 풍절음 등 외부 소음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벤츠 측은 소음을 줄이기 위해 전체적인 차량 형태부터 A-필러 및 사이드 미러의 각도 등을 세밀하게 설계했으며 이중접합 유리 및 방음재 등을 고루 사용해 정숙성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신형 E클래스는 국내에 총 7개의 라인업으로 운영되며 가격은 7390만~1억2300만원이다. 이날 시승한 E300 익스클루시브는 8990만원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구자균 LSI일렉트릭 회장이 LSI이모빌리티솔루션 멕시코 두랑고 공장을 찾아 생산 라인을 점검하고 있다.

LSI이모빌리티솔루션

멕시코 두랑고 공장 준공식 “미래 사업 한층 담당할 것”

구자균 LG일렉트릭 회장이 북미 전기차 거점을 찾아 미래 경쟁력 강화를 당부했다.

LG일렉트릭은 멕시코 두랑고 LSI이모빌리티솔루션 공장 준공식을 열었다고 5일 밝혔다.

이 공장은 북미 시장을 공략할 교통 중심지에 위치했으며, 연면적 약 1만평 규모에 EV릴레이 500만대, BDU(Battery Disconnect Unit) 400만대 생산 능력을 갖췄다. LSI이모빌리티솔루션이 물적분할한 이후 처음으로 해외에 구축하며 세번째 생산 거점으로 낙점했다.

LSI이모빌리티솔루션은 포드, 스텔란티스 등 북미 빅3 자동차 메이커와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고, 추가 투자를 통해 현재 EV릴레이, BDU(Battery Disconnect Unit) 생산라인을 증설해 오는 2030년 북미 매출 7000억 원, 전사 매출 1조 2000억 원을 달성한다는 전략이다.

구자균 회장은 기념사에서 “LSI이모빌리티솔루션은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북미 시장 공략을 위해 과감하고 빠르게 생산 거점을 확보한 만큼 그 성과도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기화 시대를 맞아 전기차 사업에 대한 투자는 필수로 인식되는 만큼 LSI이모빌리티솔루션이 북미 최고 전기차 부품 기업으로 성장해 미래 핵심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juk@

SKT 영업익 8.8% ↑… “5G 둔화, AI 수익화로 돌파”

올해 매출 17조9000억 목표 에이닷 누적 가입자 340만

SK텔레콤이 지난해 인공지능(AI) 피라미드 전략에 힘입어 9%에 육박하는 영업이익의 증가를 기록했다. 올해는 글로벌 AI 컴퍼니로의 전환을 가속화함으로써 매출 17조 9000억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SKT는 5일 오전 10시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을 열고 연결매출 17조6084억원, 영업이익 1조7532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전년 대비 1.8%, 영업이익은 8.8% 상승했다. 순이익은 1조1459억원으로 확인됐다. 별도 기준으로는 매출 12조5892억원, 영업이익 1조4559억원, 순이익 1조597억원이다.

이날 김양섭 SK텔레콤 CFO(최고



SK텔레콤 을지로 사옥.

/SKT

재무책임자) 부사장은 “5G 보급률이 68%를 넘어가며, 5G 가입자와 무선매출 성장세가 전년 대비 완연히 둔화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5G 가입자 순

증 성장외, 다양한 방법으로 무선매출 성장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SKT는 지난해 발표한 ‘AI 피라미드 전략’ 아래 추진해 온 ▲AI인프라 ▲AIX ▲AI 서비스 등 3대 사업 영역이 고르게 성장하며 발생한 실적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AI 인프라 구간인 데이터센터 사업 매출이 전년 대비 30% 성장했다. SKT는 올해 수도권에 신규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동시에 글로벌 시장 진출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AI 반도체 전문기업 사피온은 지난해 11월 출시한 AI 반도체 ‘X330’도 올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모색한다. 연내 글로벌 통신사들과 통신사 특화 거대언어모델(LLM)도 선보일 계획이다.

엔터프라이즈 AI 사업에서는 지난

1월 선보인 기업 고객 특화형 혁신 AI 플랫폼 ‘엔터프라이즈 AI 마켓’을 오픈하고 수익화에 나서고 있다. 특히 AIX 부문의 클라우드 사업은 클라우드 관리서비스(MSP)의 구독 매출 증가 등에 힘입어 지난해 매출이 1460억원으로 전년 대비 36.6% 성장했다. 도심 항공교통(UAM) 사업 또한 지난해 국내 최초로 미국 조비 에비에이션의 실제 UAM 기체를 선보이며 국내 사업 주도권을 선점해 왔다.

SK텔레콤은 올해부터 AI 개인비서 서비스 등을 성장동력으로 삼는다는 전략이다. 지난해 8월 공식 출시한 개인비서 서비스 ‘에이닷’ 성과가 돋보인 만큼, AI 사업이 본격적인 매출 성장을 이룰 것으로 보고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한화큐셀, 고효율 모듈 ‘큐트론 G2’ 출시

한화솔루션 큐셀부문이 글로벌 태양광 고객들의 고도화되는 수요에 맞춰 고효율 모듈 ‘큐트론 G2’ 시리즈를 한국과 유럽에 처음 출시한다.

한화큐셀은 태양광 모듈 신제품 ‘큐트론 G2’ (Q.TRON G2) 시리즈를 2월 한국과 유럽에서 동시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글로벌 태양광 시장에서 지배적인 점유율을 차지하는 ‘퍼크(PE RC)’ 셀·모듈을 세계 최초로 양산한 데 이어 ‘탑콘(TOPCon)’ 셀·모듈을 국내

기업 최초로 출시하게 된 것이다.

큐트론은 한화큐셀이 독자 개발한 탑콘 셀 제조 기술인 ‘퀀텀 네오(Q.A NTUMNEO)’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다. 기존의 퍼크 셀보다 발전 효율을 약 1%p 높였다. ‘퀀텀 네오’ 기술은 발전 효율을 극대화해 유리한 N타입 웨이퍼에 전하의 이동을 조절하는 얇은 산화막을 형성해 탑콘 셀을 제조하는 한화큐셀만의 기술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日 코쿠사이 엘렉트릭, 韓 유진테크 제조

일본 코쿠사이 엘렉트릭이 국내 반도체 장비 기업 유진테크에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코쿠사이엘렉트릭 자회사인 국제엘렉트릭코리아는 유진테크에 특허 기술 4건을 침해했다는 내용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5일 밝혔다.

코쿠사이엘렉트릭이 문제를 삼은 내용은 기관처리장치 등으로, 2011년부터 2022년까지 해당 특허권을 한국

을 비롯해 미국과 일본 등에 등록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코쿠사이엘렉트릭은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를 유진테크에 알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여의치 않아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코쿠사이엘렉트릭은 이번 제소와 관련하여 고객사의 제품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재웅 기자 juk@

르노코리아자동차

중소 협력사 자금난 해소 물품대금 30억 조기 지급

르노코리아자동차(이하 르노코리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부품협력사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물품대금 약 30억원을 2월 8일에 조기 지급한다.

르노코리아는 명절을 앞두고 자금요가 집중되는 중소 협력사들의 운영 부담 완화를 위해 물품대금 조기 지급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명절 전 조기 지급한 전체 대금 규모는 약 2000억원에 이른다. 올 설 명절에는 총 73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예정된 지급일보다 최대 17일 앞서 물품대금 지급이 결정되었다.

홍영진 르노코리아 구매본부장은 “수출 물류비 상승 기조에 최근 물류 지연까지 더해져 르노코리아와 협력사들이 수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설 명절을 맞게 되었다”며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 하반기 신차 경쟁력 강화에 협력하고 있는 협력사들과 동반성장 및 상생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JUNO GOLF
PREMIUM GOLF STUDIO

경험해보세요 김준호 프로의 레슨 과학

- 미국, 호주 등 골프 선진국의 레슨 노하우를 국내에서!
- 초고속 카메라 데이터분석의 프리미엄 레슨과학!



김준호 프로 ■ 유튜브: 주노골프 ■ 인스타그램: juno_kim_44 ■ 주노프리미엄골프스튜디오 070-4243-9238

KPGA 프로 / 전) 국가대표 및 상비군 주장 / 중앙대학교 스포츠과학부 졸업(골프전공) / 미국 Brian Mogg 골프스쿨 3년 수료 / 호주 Ryde Paramatta Club 대표선수(4Y) / 미국 호주에서 다년간 골프 레슨

자동차株, 수혜주 등극에 주가 ‘훨훨’ 외국인도 현대차·기아 매수세 탑승

현대차·기아, 근래 최고가 경신
PBR·실적, 주주환원 조건 충족

주주가치 제고, ROE 상향 조정
영업지표 방향까진 바꾸지 않아
PBR 할인 완전 해소는 부담있어
정량적 ROE 개선 충분히 반영 중

호실적과 함께 공격적인 주주환원정책을 발표한 현대차·기아에 외국인 매수세까지 몰리면서 주가가 날개를 날았다.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수혜주로 꼽히는 만큼 상승 여력이 남았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대표 자동차주인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가 최근 2주간(1월 22일~2월 5일) 각각 30.98%, 35.04%씩 급등했다. 두 종목 모두 근래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시가총액 순위 경쟁을 펼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 내에 속해 있는 두 기업은 현대차를 형으로, 기아를 아우로 칭하고 있지만 최근 기아가 현대차의 시총을 넘어서면서 이변을 일으키기도 했다. 현재는 현대차가 다시 코스피 시총 5위의 자리를 탈환했다.

삼성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외국인의 투자가 집중되는 기업은 저주가순자산비율(PBR), 견조한 실적, 강력한 주주환원 등의 조건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는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종목이라고 평가된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현대차의 적정 PBR은 0.89배이며, 이를 대입한 적정주가는 34만원으로 업사이드 50%된다고 분석했다. 기아 역시 적정 PBR은 1.36배이기 때문에 적정주가가 18만6000원으로 55% 가량 업사이드된다.



현대차·기아 양재사옥.

또한, 4일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말 기준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 누적 판매대수가 153만8689대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현대차는 88만6653만대, 기아는 65만2036대의 판매 실적이다. 이는 전년 대비 38.9% 증가한 수치로 앞서 발표된 지난해 4분기 실적 결과에 이어 상당한 호실적으로 평가된다. 이중 해외 판매 비중은 78.3%(40만4530대)에 달한다.

게다가 두 기업 모두 주주환원에 가장 적극적인 회사로 꼽힌다. 윤혁진 SK증권 연구원은 “양사는 상장사 중 가장 주주환원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자동차 부문에서 매월 1조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어 배당 재원이 튼튼하며, 금융회사와 달리 정부의 배당규제도 없어서 최근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가장 모범적인 회사로 생각된다”고 진단했다.

현대차와 기아는 현재 지배주주 순이익의 25%를 배당하고 있으며, 현대차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3년간 1%씩 소각할 것으로 밝혔고, 기

아는 5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신규 매입(상반기 중 50% 소각, 경영목표 달성 시 나머지 50%도 소각)을 발표한바 있다. 이는 실제로 역대 최대 외국인 순매수로 이어지면서 주가 급등세를 이뤄 내기도 했다.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가 각각 9.13%, 12.42% 올랐던 지난 2일에는 외국인 순매수가 현대차에 5532억원, 기아에 2710억원씩 유입됐다. 이날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의 순매수세는 약 1조8950억원으로 현대차·기아가 이중 43.4%를 차지한다.

다만 김준성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액션은 분명 자기자본이익률(ROE) 상향 조정 근거가 되지만, 영업지표의 방향까지 바꾸지 않기 때문에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영업지표 방향성 전환이 확인되지 않은 지금 PBR 할인의 완전 해소는 부담스럽고, 현재 양사의 주가는 발표된 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에 따른 정량적 ROE 개선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제언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한투운용, ‘장기자본시장가정 리포트’ 공개

자체 개발한 자산조합 방법론
변동성·간상관계수 가정 등 포함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지난 1월 31일 한국투자신탁운용 유튜브 채널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024년도 장기자본시장가정(LTCMA) 리포트’를 공개했다고 5일 밝혔다. LTCMA는 한국투자신탁운용에서 40년 이상의 경기사이클을 분석해 자체 개발한 최적의 자산 조합 방법론으로 이번 LTCMA 리포트는 지난해 1월 첫 LTCMA 리포트 발간 이후 2번째다.

2024년도 LTCMA에는 장기 자산배분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한 자산군별 기대수익률과 위험(변동성), 자산군 간 상관계수에 대한 가정 등이 포함돼 있다. 2023년도 LTCMA와의 차이점은 2022년부터 상승한 금리수준을 반영해 만기보유수익률이 높아짐에 따라 채권 기대수익률이 상승한 점이다. 미국 하일드 채권의 경우, 전년 대비 기대수익률이 약 1.5% 상승해 위험자산 중에

서는 기대수익률이 가장 크게 상승했으며, 샤프비율(Sharpe Index)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자산으로 분석됐다. 반면, 주식의 경우, 원달러 환율의 기대수익률이 하락함에 따라 주식 기대수익률은 미국 달러 기준으로 소폭 상승, 원화 기준으로 소폭 하락했다.

2023년도 LTCMA에 이어 2024년도 ‘크로스매칭(Cross Matching)’ 전략이 강조됐다. ‘Cross Matching’ 전략은 환노출한 해외 주식과 국내 채권에 분산투자하는 방식이다. 환노출 투자시, 해외 주식의 변동성이 낮아 주식 투자비용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유리하다. 한국투자신탁운용에서는 ‘Cross Matching’ 전략을 한국투자TDF알아서ETF포커스 펀드 등 다양한 자산배분 솔루션 상품에 핵심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한국투자TDF알아서ETF포커스 펀드는 투자자의 은퇴 시점에 맞춰 포트폴리오가 자동 조정되는 생애주기펀드로 LTCMA를 반영해 운용하고 있다.

/신하은 기자

헬릭스미스, ‘엔젠시스’로 상한가 연이어

(유전자 치료제)

中 임상3상서 주평가지표 달성

헬릭스미스가 유전자 치료제 ‘엔젠시스’가 중국 임상3상에서 주평가지표를 달성했다는 소식에 2거래일 연속 상한가로 치솟았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헬릭스미스는 전 거래일 대비 가격제한폭(29.93%)까지 오른 5730원으로 거래를 마치며 지난 2일에 이어 또 다시 상한가를 기록했다.

헬릭스미스의 중국파트너사인 노스랜드 바이오텍은 중증하지허혈(CLI)을 대상으로 엔젠시스(NL003)를 사용하여 실시한 폐양 완치 목적의 임상시험 3상에서 주평가지표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 날 노스랜드 측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1차 평가지표인 폐양 완치율이 NL003 투여 그룹이 위약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우수했고(p<0.0001), 안전성면에서는 약물과 관련된 심각한 부



헬릭스미스 중국 파트너사 노스랜드 바이오텍 생명공학의약품 생산시설.

작용이 발견되지 않았다.

노스랜드사는 휴지기 통증 감소를 주평가지표로 하는 임상3상(300명 규모)과 폐양 완치를 주평가지표로 하는 임상3상(240명 규모), 두 개의 독립적인 임상3상을 2019년 7월 개시하여 중국 전역의 24개 임상시험센터에서 진행해 왔다.

이번 결과 발표는 폐양 완치 목적의 임상3상에 대한 결과이며, 통증 감소를 목표로 하는 나머지 임상3상에 대해서는 올해 3분기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세경 기자

“홍콩 ELS 판매중단…증권사 자금조달 타격”

나이스신용평가, 관련 보고서 발간
ELS 차지 비중 40.3%… 가장 높아
관련 리스크 줄어 충격 제한적일 것

시중은행들이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파생결합증권(ELS) 판매를 중단하면서 증권사에 타격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5일 나이스신용평가가 발간한 ‘시중은행 ELS 판매축소가 증권사 및 캐피탈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증권사가 발행한 파생결합증권 잔액중 ELS가 차지하는 비중은 40.3%로 가장 높다. 특히 증권사가 발행한 ELS 중 은행신탁 형태를 통해 판매된 규모는 전체 40조원 가운데 62.8%인 25조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홍콩 H지수 기초 ELS 투자자의 대규모 손실이 가시화되면서 주요 판매채널인 시중은행은 ELS 판매를 잠정 중단하거나, 판매 대상 ELS 범위

를 대폭 축소하고 있다. 나신평은 주요 은행의 ELS 판매 축소 조치는 증권사의 파생결합증권 관련 수익과 조달원 다변화 측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나신평은 “은행의 ELS 판매 축소는 증권사가 ELS 발행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헤지운용 이익이나 조기상환 관련 수수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드는 등 수익 창출 다변화 기회가 적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ELS 헤지 관련 리스크가 줄어들면서 충격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3분기 기준 증권사의 파생결합증권 관련 발행 및 운용 손익은 1153억원 손실을 기록했는데 주로 홍콩 H지수 하락에 따른 헤지자산 운용손실(8000억원)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신평은 “은행의 ELS 판매 축소는 증권사가 ELS 발행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수익 창출 다변화 기회가 적어지

는 것”이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만큼 운용하는 증권사의 헤지 손실 가능성이 커질 수 있는 리스크가 감소하므로 일방적인 수익성 하락 요인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자금조달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증권사의 예수부채와 차입부채를 합한 금액 중 ELS 또는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9월 기준 12.7%이다. 또한 ELS 발행 잔액 등을 감안하면 조달규모 가운데 약 5%가 판매축소 조치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나신평은 “ELS는 헤지자산이 주로 파생상품 투자로 구성되어 있어 조달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퇴직연금 시장 확대 등 ELB 발행 확대를 통해 ELS 수요 감소에도 대응할 수 있는 점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KB증권 “미성년 계좌 17만개로 증가 추세”

4년전비 15배 ↑… 용돈으로 소액투자

미성년 주식투자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KB증권이 이들의 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다.

5일 KB증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KB증권 미성년 고객(0세~18세) 중 주식을 한 번이라도 보유한 고객은 17만5260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19년 1만1632명 대비 약 15배 증가했고, KB증권 전체 고객 대비 비율도 1.50%에서 5.93%로 4.43%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작년 연말 기준, KB증권의 미성년 자녀 고객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주식 TOP5는 삼성전자, 에코아이, 삼성전자유, POSCO홀딩스, LG에너지솔루션 순이었으며, 해외주식 TOP 5는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알파벳A, INVESCO QQQ TRUST UN 순이었다. 대부분 장기투자가 가능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주를 이뤘다.

더불어 국내외 주식의 소수점 매매가 가능해지면서, 세뱃돈 등 용돈을 활용한 소액 투자도 관심이 늘고 있다. 작년 미성년자 주식 보유 고객 중 약 9.6%는 소액 투자를 활용한 소수점 주식도 보유했다.

또한, 미성년자인 자녀들도 최근 열기를 띠고 있는 공모주 청약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해 KB증권에서 공모주 청약에 참여한 미성년자녀 고객은 5만5373명에 달하며, 이 기간 동안 1인당 평균 2.7회 참여했다.

/신하은 기자

혐오·폭력·가짜뉴스 알고리즘으로 이용자 체류시간 확대

대책없이 플랫폼만 배불려… SNS, 책임강화 등 규제 절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며 문제가 계속 늘고 있지만 정부와 플랫폼 기업이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

최근 SNS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플랫폼 기업의 이익만을 위한 알고리즘’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 2021년 페이스북은 이용시간을 크게 확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선정적이며 자극적인 콘텐츠 노출 빈도를 높였던 사실이 폭로됐다. 비슷한 정황은 타 SNS 플랫폼에서도 계속 발견됐다.

문제 해결을 위해 유럽연합(EU)는 알고리즘을 공개하지 않은 빅테크 기업에 대해 EU 내 영업을 금지시키는 고강도 규제안인 DMA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반면 한국은 SNS로 인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대신 개별 사안에 대해 각기 법률을 제정하는데 급급해 새로운 유형 또는 신기술을 이용한 범죄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지난 1월 31일(현지시간)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가 미국 연방 상원 법사 위원회에서 진행한 청문회에서 자사 SNS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으로 인해 벌어진 온갖 범죄 및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사과했다. 저커버그 CEO는 SNS를 통로로 일어난 범죄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들에 대해 사과하고 싶다. 누구도 여러분의 가족들이 겪은 일을 겪어서는 안 된다”고



휴대폰을 이용 중인 행인들의 모습. 모바일 기기가 데스크탑에 준하는 성능과 기능을 갖추게 되면서 해킹 피해 강도가 아주 커졌다. /뉴스시스

韓, 성착취 범죄 ‘N번방 사건’ 화장품·약품 허위·과대광고 등 문제 드러날대 마다 개별적 대응

새로 나타난 문제 처벌방법 없어 ‘플랫폼 책임강화’ 기업규제 제시

사과했다. 저커버그가 청문회에 소환돼 직접적인 사과까지 한 데에는 페이스북 등 SNS 플랫폼이 다양한 문제를 의도적으로 방치한다는 혐의 때문이다.

2021년 전 페이스북 직원 프랜시스 하우건은 ‘페이스북 파일즈(Facebook Files)’로 불리는 회사 문건과 회사 내부 전략을 폭로했다. 당시 하우건의 폭로는 ▲사용자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통해 혐오·폭력·가짜뉴스 등 확산 ▲페이스북(현 메타)는 인스타그램이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을 인지했으나 이를 그대로 방치 등이다. 내부인에 의한 첫 폭로에 전세계적으로 큰 반향이 일어났고 SNS 알고리즘의 문제와 책임론이 대두됐다.

페이스북의 조치는 철저히 수익성에 입각한다. 혐오·선정적·폭력적·편향적인 콘텐츠와 가짜뉴스의 빈도를 증가시키면 수용자의 반응은 적극적으로 변한다. 논란을 일으켜 이름을 알리는 ‘노이즈 마케팅’과 동일한 효과다.

SNS 체류 시간 증가와 반응은 곧 플랫폼 기업의 매출로 나타났다. 페이스북 파일즈 폭로 직전인 2019년 페이스

북(현 메타) 매출에서 보유 중인 SNS 전체의 광고 수익은 전체 수익의 98.5%에 달했고 연 매출은 전년 대비 26.6% 증가한 707억달러(약 82조 3800억원·기준환율 1165.09원)를 기록했다. 광고로 벌어들인 금액만 696억달러였다. 페이스북은 2012년 매출 50억달러(약 5조 원)를 넘긴 후 매년 최소 20% 이상 매출이 상승했고, 상승세에는 늘어나는 광고와 오염된 콘텐츠가 있었다. 이러한 폭발적인 매출 상승세는 이용자의 증가도 있지만 동시에 유해 콘텐츠의 방치 또한 이루어졌다는 뜻도 된다.

기업 이익을 위해 방치 한 유해 콘텐츠는 결과적으로 제2, 제3의 문제를 낳는다.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연구팀이 1911명에 달하는 13세에서 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스마트폰 중독이 심할수록 유해 콘텐츠 노출이 잦아졌고 반대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더불어 중독과 유해 콘텐츠 노출이 잦을수록 성폭력 가해행위와 함께 음주 등 탈선도 관찰됐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부정적 콘텐츠들에서 우울감이 상승하고 긍정적 콘텐츠에서는 행복감이 늘어나는 정비례 상관관계도 관찰됐다.

전문가들은 각 개별 사안에 대응하는 법률이 제·개정하는 것만으로는 첨단 ICT 기술 발전 속도는 물론 해의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최소한의 대책도 마련할 수 없다고 말한다. 알고리즘 개선이

요원하다면 적어도 해의 플랫폼이 국내 범죄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하고 감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기술 발전에 신종 범죄가 새로운 형태로 나타났다. 최근 10대 사이에서 SNS와 한 제페토 등 메타버스 환경에서 아동 그루밍 범죄 등이 일어나 문제되고 있다. 그러나 과거 메타버스 열풍이 불었음에도 아바타의 지위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지 못한 탓에 성희롱 등을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 SNS를 통해 무작위로 퍼지는 정치인과 연예인에 대한 가짜뉴스도 피해자를 만들지만 글로벌 플랫폼은 범의 반쯤을 교묘히 빠져나가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스타십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연예인 보호를 위해 몇년간 가짜뉴스를 퍼뜨린 박모씨를 검거하기 위해 민형사 소송은 물론 해외소송까지 벌였다.

해결책으로는 플랫폼의 책임 강화를 위한 기업 규제가 제시된다. 법적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면 플랫폼 기업은 SNS를 통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

디지털 범죄에 대해 장기간 대응해온 정희진 탁틴내일 팀장은 “민관 협력을 통해 범죄 발견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 책무 강화 차원에서 자율규제 현황을 점검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고가 제품에 기자 실명 노출 ‘셀럽’ 정용진, SNS활동 화제

“의자샀다” 게시에 판매 이어지고 게시물에 댓글 700여개 달리기도

“SNS 활동, 지지하기도 하지만 자극적 내용에 ‘양날의 검’ 우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이 세간에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피드(사진 및 영상)의 정보를 내가 등록한 팔로워들에게 전달하는 행위) 때문이다.

정용진 부회장은 지난달 29일 “형의 자 샀다. 의외로 편해 기자친구들 얼마인지 맞춰봐”라고 SNS에 올렸고, 같은 날 “애더라 그리고 기자친구들, 형 지지 하디드 만나서 밥 먹었다. 그리고 우리 기자친구들 억척하지 말길바래 고마와”란 글을, 27일에는 “애더라 그리고 기자친구들 형 OR 만났다” 등의 SNS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누리꾼들은 정 부회장이 기자들에게 질문하듯 작성한 피드가 재미있다는 반응이다. 게시물에 올리 때마다 댓글 반응이 뜨겁다.

이 같은 정 부회장의 SNS 활동은 마케팅 효과로까지 이어졌다.

앞서 “형의 자 샀다”라는 피드에 올라간 알락꼬리원숭이, 기린, 얼룩말 등 다양한 동물들과 모피가 덮여있는 사진만

으로 누리꾼들은 해당 의자의 정보와 가격까지 파악해 빠르게 댓글로 정보를 공유하고 나섰다. 심지어 판매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재미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기사를 캡처해 게재하는 형태의 게시물도 올리기도 한다. 게시물에는 기자의 본명이 그대로 노출됐다.

지난달 14일 정 부회장은 “SNS소통 강화, 장남 등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승부수 통찰까”라는 모 언론사의 기사의 제목을 그대로 캡처해 SNS에 게재했다. 심지어 기자의 본명까지 함께 노출됐다. 해당 게시물의 피드에 정 부회장은 “이 친구야 장남 등장이 승부수면 장녀까지 등장시키면 신의한수겠다”라고 맞받아치는 듯한 내용을 언급했다.

이후 기사를 저격하는 듯한 많은 댓글이 쏟아져나왔다.

해당 게시물 댓글에 따르면 ‘진심으로 기자가 꿈이었던 게 부끄럽다’, ‘기자들 취재안하고 인스타만 보고 기사 작성하네요’, ‘정부회장이 기자분들 밥 줄까지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까요’ 등 꽤나 자극적인 댓글들이 확인됐다. 해당 게시물의 댓글은 현재 시점 734개다.

이런 가운데, 유통업계는 정 부회장의 열정적인 개인활동에 박수를 보내면서도 조심스럽다는 반응이다.



정 부회장은 지난 달 27일 본인의 SNS를 통해 “애더라 그리고 기자친구들 형 OR 만났다”라는 게시물과 함께 OR과 같이찍은 사진을 게재했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SNS 갈무리

“기자도 마케팅 되고 좋겠네”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가 하면 ‘개인정보 보호는 전혀 무신경?’이라는 반대되는 시각도 존재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 부회장은 젊은 경영인 중 가장 SNS를 활발하게 하고 있다. 이런 활동을 지지하기도 하지만 종종 다소 자극적인 내용도 언급돼 양날의 검으로 작용될 소지가 용이하다. 재미있다는 반응도 많지만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이유”라고 말했다.

한편,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약 84만명의 팔로어를 보유, 재계 젊은 수장들 중 ‘셀럽’으로 불리며 활발한 SNS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최빛나 기자 vitna@

아우디 ‘상품성 강화’ 2024년형 A7 PHEV

고급 디자인에 편의사양 확대 적용

아우디코리아가 A7의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모델 ‘더 뉴 아우디 A7 55 TFSI e 콰트로 프리미엄’의 상품성 개선 모델을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상품성 개선 모델은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운전자 편의사양을 대거 확대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더 뉴 아우디 A7 55 TFSI e 콰트로 프리미엄은 2.0L 4기통 가솔린 직분사 터보차저 엔진과 전기 모터를 탑재해 최대 합산 출력 367마력, 최대 합산 토크 51.0 kg·m을 발휘한다. 최고속도는 210 km/h로,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 시간인 제로백은 5.8초다.

연비는 복합 연비 기준 15.7km/L로 측정됐다. 전기 모터 주행 시 전비는 3.0 km/kWh다. 더 뉴 아우디 A7 55 TFSI e 콰트로 프리미엄 외관은 새롭게 디자인된 싱글프레임과 S라인 익스테리어 패키지, 블랙 패키지를 기본 적용해 프론트범퍼, 리어범퍼, 디퓨저, 프론트그릴이 세련되고 우아한 차체 디자인에 한층 역동적이고 스포티한 매력을 더했다. 실내에는 내추럴 볼케이노 그레이 인레이, 블랙 헤드라잉, 전동식 스티어링 휠 컬럼 등이 적용되어 더욱 고급스럽고 세련된 실내 분위기를 연출한다.

/양성운 기자 ysw@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중기부, 경력단절여성 창업 프로그램 추진

프로그램 참여 창업자 모집

정부가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창업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한다.

기술보증기금의 ‘여성기업 전용 특별보증’, 한국벤처투자자의 ‘여성기업 전용 벤처펀드’를 통해 마중물도 붓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도 경력단절여성 창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창업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프로그램은 기존의 ‘여성벤처창업 케어 프로그램’을 경력

단절여성 중심으로 탈바꿈해 추진한다.

가장 큰 차별점은 교육과 컨설팅 위주의 기존 여성 창업지원 사업들과 달리 선발한 여성기업의 창업 아이템과 가장 유사한 업종, 경력을 가진 성공한 선배 여성기업 대표와 연결해 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창업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성공 가능성을 높일수 있다.

올해부터는 기술기반 업종 중 반도체, 바이오, 라이프스타일 분야에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bada@

“고의·상습 체불에 무관용 대응” ‘재감독’ 유형 신설해 기능 강화

고용부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
체불 피해 50명·금액 10억 이상
사업장에 특별 근로감독 실시 원칙
이정식 “노동시장 4대가치 확립”

지난해 임금 체불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고의·상습 체불 기업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한다.

상습적 법 위반 사업장 대상 ‘재감독’을 신설하고, 임금 체불로 사회적 파장을 부른 사업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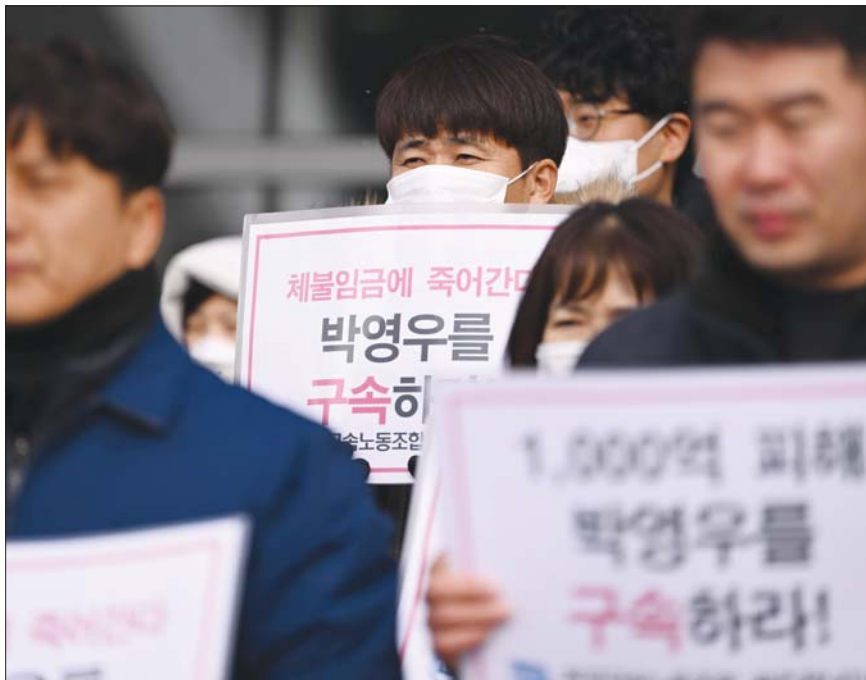
고용노동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근로감독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법 위반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존 정기·수시(기획)·특별 근로감독 외에 ‘재감독’을 근로감독 유형으로 신설해 근로감독 기능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근로감독 이후에도 법 위반 신고가 접수되면 재차 감독에 나서고, 고의·상습 법 위반이나 근로자의 건강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등이 확인되면 시정명령 없이 즉시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피해 근로자 50명 이상, 피해 금액 10억원 이상이거나, 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체불에 대한 범정부적인 체계적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생존을 위협하는 임금체불’, ‘공정가치를 훼손하는 차별과 모성보호’, ‘일과 삶의 균형, 건강권을 해치는 장시간 근로’, ‘노동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한 4개 분야 집중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위니아전자·위니아딤채지회가 22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우위니아 임금체불·법정관리 사태와 관련해 박영우 대우위니아 회장을 향한 책임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기획감독도 추진한다.

아울러 미래세대인 청년이 다수 일하면서 노무관리에 취약할 우려가 있는 IT(정보통신), 플랫폼 기업과 대형 병원 등에 대한 기획감독도 연중 병행하기로 했다.

스포츠구단, 헬스장 등 기간 감독이 소홀했던 업종과 분야를 중심으로 릴레이 기획감독을 실시해 사각지대 최소화해 노동권을 촘촘히 보호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재직근로자의 익명제보를 토대로 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익명제보 기반 기획감독 대상은 작년 12월까지 운영한 익명제보센터에 접수된 165건에 대해 지난 1월부터 기획감독에 착수한 상태다.

소규모 기업과 약자보호를 위해 30인 미만 기업은 ‘청년’, ‘여성’, ‘외국인’, ‘건설현장’ 6대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민간 협·단체와 역할을 분담해 집

중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3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그간 계층별·분야별로 구분해 실시하던 정기 감독을 ‘종합 예방점검’으로 확대 개편해 종합적인 예방과 자율개선 중심의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또 올해 근로감독이 종료된 사업장 약 1000곳에 대해 감독 과정의 적절성, 결과의 공정성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제도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근로감독 국민평가제’를 도입한다.

이정식 장관은 “올해 우리의 목표는 공정·유연·활력·안전 등 노동시장의 4대 가치 확립을 통해 미래 세대가 필요로 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노동개혁을 완수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현장의 노사법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엄정한 근로감독을 통해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외국인 근로자 16.5만명 도입 달성할 것”

한국산업인력공단

송출국 기관장 등과 5~7일
‘미래지식포럼·워크숍’ 개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5일~7일까지 서울 용산구 나인트리에서 필리핀 등 16개 고용허가제 송출국 기관장과 EP S센터 주재원 등을 초청해 ‘EPS센터-송출기관 미래지식포럼·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해 고용허가제 도입 쿼터가 역대 최대인 16만5000명에 달하는 만큼 원활한 사업 운영과 공고한 국외 협력체계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EPS센터는 중소기업에 16개국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해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는 기관이다.

2004년 시작돼 올해 20주년을 맞는 고용허가제 사업은 국내 일손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외국인 근로자(E-9)를

지원해, 국내 빈 일자리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는 10만148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했고, 제도 시행 이후 누적 96만1347명이 입국했다.

공단은 △한국어 교육 콘텐츠 개발 △선발 체계 고도화 △실시간 입국 정보 확인 시스템 개선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미래지식포럼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적기 선발, 신속 도입, 권익 보호 등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논의한다.

이우영 공단 이사장은 “16개 국가를 잇는 고용허가제 국내·외 관계자가 모인 뜻깊은 자리”라며 “외국인 근로자 역대 최대 규모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EPS 미래지식포럼을 정례적으로 개최해 지속가능한 고용허가제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장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담수 미세조류 추출물서 항암 효능 발견

간암 성장·전이 억제효과 확인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이 5일 담수 미세조류인 클로렐라 소로키니아나 추출물에서 간암세포의 성장과 전이를 억제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클로렐라 소로키니아나(chlorella sorokiniana)는 녹조류에 속하는 단세포 미세조류이다. 주로 강이나 호수, 연못 등의 담수에 서식한다. 높은 영양가와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 단백질, 오메가-3지방산 등을 함유하고 있다고 자원관은 설명했다. 또 루테인, 엽록소 등의 색소 물질을 비롯해 이소람네티, 캠퍼롤과 리퀴리티게닌 등의 폴리페놀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건강기능식품 조성물 또는 약학 조성물 활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자원관 연구진은 “최근 클로렐라 소로키니아나가 항산화 물질을 다량 함

유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대량배양 기술을 통해 추출물을 다량으로 확보한 후, 항암 효과에 대한 생리활성을 분석한 결과, 클로렐라 소로키니아나 추출물이 간암세포의 증식과 전이를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등 항암 활성이 우수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자원관이 지난 2021년부터 수행하고 있는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지원 선진화 사업’의 일환이다. 선문대 식품과학부 연구진과 함께 진행한 ‘담수 미세조류 계통분류 및 유용정보 확보’ 연구를 통해 항암 효능을 확인했으며, 최근 특허 출원까지 마쳤다.

류시현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생물자원연구실장은 “간암 억제 효능이 확인된 국내 서식 담수 미세조류가 향후 간암 치료용 소재로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능성 천연소재 개발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안덕근 “1달러라도 더 수출하도록 총력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경기 반월·시화 산단 방문
수출현장지원단 간담회 개최
산단 디지털 등 2250억원 투입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수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단 1달러라도 더 수출할 수 있도록 수출현장지원단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수출현장지원단의 세 번째 행선지인 경기도 반월·시화 산단을 방문해 중소·중견 수출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올해 1월 수출 성과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반월·시화 산단은 뿌리산업부터 전자·기계·화학 등 주요 업종이 입주한 곳으로 입주기업수(2만484개사)를 기준으로 국내 최대 산업단지다.

간담회에서는 우리 수출의 36%를 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금융·마케팅, 해외규격 인증 등 수출 지원책과 함께 전기전자 부품, 바이오에너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분야에 대한 제도적 지원방안이 논의됐다.

안 장관은 “올해 역대 최대 수출목표 달성의 바로미터인 1월 수출이 2022년 5월 이후 20개월 만에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완전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우리 수출의 65.7% (2022년 기준)를 담당하는 산업단지가

최근 겪고 있는 기반시설 노후화와 인력충원 어려움 해소를 지원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앞서 수출현장지원단 일행은 산단 입주 기업인 대모 엔지니어링의 건설장비 생산라인을 참관했다. 안 장관은 “생산 공정의 스마트화와 같은 제조현장의 끊임없는 혁신이 바로 수출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 일반기업이 어려운 대외여건 하에서도 10개월 연속 수출증가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올해 중소·중견기업의 공통된 수출 애로사항인 금융·마케팅·해외인증 분야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소·중견기업 대상 역대 최대 규모인 87조원 규모의 무역보험을 공급하고, 2조2000억원 규모 수출금융 우대상품도 1분기 내 신설해 본격 지원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송미령, 전통시장 설 성수품 수급상황 점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시장 상인·관계자들과 현장 청취
‘성모의 마을’ 성금·농축산물 전달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일 오후 충남 논산 화지중앙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 내 설 성수품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또 논산 상월면에 위치한 ‘성모의 마을’을 찾아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를 격려하고 성금 및 농·축산 식품 등을 전달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송 장관은 시장을 돌아보며 사과, 돼지고기, 쌀 등 설 성수품 및 농축산물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시장 상인 등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 여론을 청취했다. 송 장관은 “전통시장이 저렴하게 공급하는 농축산물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며 “정부도 현장 환급행사 및 성수품 공급 확대 등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어 중증장애인 요양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식품부

설인 성모의 마을을 찾았다. 그는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농축산물 등 위문품과 함께 농식품부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성금과 기부물품을 전달했다.

농식품부는 “소외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장·차관을 비롯한 간부들의 희망나눔 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Since 1996
햇터그룹

가성비 좋은 너로 정했다!

대한홍삼 건강백화점

무료 창업 교육

복지 쇼핑몰(온라인) + 건강백화점(오프라인)

교육 일정

2024년 2월 15, 22, 29일 목요일 오후 2시 ~ 5시

교육 정원

매월 선착순 30명 (정원초과 시 익월 수강)

교육비

전액 무료

교육 대상

전국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주부사원, 직장인, 퇴직자 등

교육 목표

실전교육 전문적인 사례 중심
매출상승 다양한 매출전략 교육
전문양성 성공적인 창업 배출

수강 혜택

수료하신 모든 분들께 **고급홍삼세트** 증정

수강 방법

1. **대한홍삼 홈페이지 > 상담신청**에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거나,
2. **문자 or 이메일**로 성함과 연락처를 전송해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 법인폰 : 010-4480-0045 / E-mail : haettercs@naver.com

교육 주관

**햇터그룹**

교육 강사

햇터그룹 회장 박광섭 (CEO 35년 경력)

**햇터**

햇터그룹지주회사

**브레인TV**3천만이상 시청자 보유
방송전문기업**대한홍삼**국내5대 브랜드
홍삼전문기업**한삼장홍삼**건강식품 / 용품
유통전문기업**햇터라이프**업계최초 계층형 B2E
E커머스 플랫폼 전문

교육 장소

본사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마산로96, 대륭테크노타운 8차 601호
가산디지털단지역 1호선 11번 또는 7호선 9번 출구에서 600m

교육 문의

햇터그룹 창업아카데미 고객센터 010-4480-0045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경북도, 동남아 관광객 유치 총력… 맞춤형 상품 발굴 박차

‘필리핀 트래블 투어 엑스포’서
경북문화관광공사와 부스 운영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홍보와
한류드라마 촬영지 연계로 눈길

경북도와 경북문화관광공사는 필리핀 등 동남아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난 2~4일 필리핀 마닐라 SMX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 ‘필리핀 트래블 투어 엑스포 2024(Travel Tour Expo 2024)’에 참가해 경북관광을 알렸다.

이번 박람회는 필리핀 최대 관광 박람회로 300여 개 기관, 9만 명의 방문객을 기록했다.

도와 공사는 경북의 매력적인 관광 특색을 살린 부스를 운영하며 현지 여행사와 개별관광객을 대상으로 경북 관광 홍보 및 상담을 실시했다. 오는 9월 27일부터 개최하는 안동국제탈춤



경북도와 경북문화관광공사는 필리핀 등 동남아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난 2~4일 ‘필리핀 트래블 투어 엑스포 2024(Travel Tour Expo 2024)’에 참가했다. /경북도

페스티벌 등 지역축제와 경북이 자랑하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특색있는 관광상품을 중점적으로 홍보했다. 또한, 개별관광객 대상 설문조사 이벤트를 진행하며 필리핀 방한 여행 수요를 파악하고 선호하는 관광상품 및 여행 트렌드 자료를 수집했다.

박람회 기간, 메인 홍보 무대에서

‘한국 속의 한국, 가장 한국적인 경상북도’라는 주제로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진행해 경북의 대표 관광지를 소개했다. 이어, K-콘텐츠에 관심이 많은 나라임을 고려해 인기리에 방영된 한류드라마의 경북 촬영지를 연계 홍보하며 현지 여행사와 개별관광객의 눈길을 끌었다.

이번 행사는 장기적인 협업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현지에서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한국관광공사 마닐라지사와 필리핀 한국문화원과는 현지 관광 시장 동향을 공유하고 필리핀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협력 사항을 논의했다.

현지 주요 아웃바운드 여행사(락소 트래블)와는 경북 관광상품 개발 관련 협업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김상철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필리핀은 한국비자센터 개소 및 단체관광객 전자 비자수수료 면제 혜택 등 입국 편의 개선으로 방한 규모 증가가 예상되는 국가이다”라며 “관광객이 선호하는 맞춤형 경북 체류 상품을 발굴·확대하여 동남아 시장 개척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경북-장영우 기자 ycyw57@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울주군

중소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울산 울주군이 중소기업의 경영난 극복과 위축된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2024년 1차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 경영안정자금 융자 규모는 총 750억 원이며, 이번 1차 사업은 500억원 상당이 투입된다.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3억원(우대 기업 4억원)의 대출금에 대해 이차보전금 3%를 2년간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울주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홈페이지 또는 울주군 중소기업경영지원센터에서 접수한다.

/울주(울산)=이도식 기자

김해시

11개 테마형 관광코스 개발

경남 김해시가 2024 김해방문의 해를 맞아 11개 테마형 관광코스를 개발했다고 5일 밝혔다.

김해방문의 해 테마형 관광코스는 김해의 명소를 총망라해 이동 동선, 여행 목적과 구성원, 성향까지 고려해 전체 11개 코스로 개발했다.

이 중 주요 4개 코스는 ▲김해 첫 방문객을 위한 김해의 명소로 떠나는 ‘첫 방문 코스’ ▲교육과 즐거움이 있는 ‘온 가족 코스’ ▲오감으로 느끼는 ‘로컬여행 코스’ 그리고 MZ세대 문화로 자리 잡은 성격유형지표인 MBTI를 활용한 ▲성향별로 떠나는 ‘MBTI 코스’ 등이다.

/김해(경남)=이도식 기자

전남교육청

저탄소 녹색급식 400개교로 확대

전남교육청이 탄소중립 실현과 저탄소 식생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1년부터 추진 중인 저탄소 녹색급식 실천학교를 400개교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목포대학교에서 학교급식관계자 조리 아카데미 연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학교급식 운영 계획을 공유했다.

사업 시행 첫해 80개교로 시작한 탄소중립 실천학교는 지난해 244개교에 이어 3년 만에 두 배 가까이 확대 운영한다.

/전남=양수녕 기자 ysn6313@

안동시

‘차전장군노국공주축제’ 개최

안동시는 오는 5월3~7일 개최되는 ‘2024 차전장군노국공주축제’를, 어린이날 여행주간을 맞아 테마파크형 축제로 기획하고 있다. 7개의 랜드로 조성될 축제장에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놀이 천국을 선보일 예정이다.

차전장군랜드와 노국공주랜드에서는 20여 가지의 게임콘텐츠와 연희 공연, 연극 등이 다채롭게 펼쳐지고, 퍼포먼스랜드에서는 집단 참여놀이와 안동의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를 비롯한 차전놀이 대동놀이와 관광객 참여형으로 펼쳐질 예정이다. /안동(경북)=장영우 기자

여수시, 지난해 관광객 2759만명

외국인 관광객 23만명… 8배 증가
‘글로벌 해양관광 휴양도시’ 도약

여수시는 여수 관광 빅데이터 분석 결과 2023년 누적 관광객이 2759만 명으로 2022년 관광객 대비 1.6% 증가했다고 밝혔다.

‘여수 관광 빅데이터 분석’은 시가 매년 관광 정책의 질적 향상을 도모코자 여수시를 찾는 관광객들의 이동통신과 신용카드 매출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외지인 관광객을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분류한 자료다.

2023년 분석 결과,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성과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총 23만 명으로 2022년 대비 8배 이상 증가하며 ‘글로벌 해양관광 휴양도시’로의 도약에 힘이 실리게 됐다.

이는 그간 여수시가 7년 만에 중국 크루즈 선사 입항 등 총 5회의 국제크루즈 유치와 적극적 해외 MICE유치 마케팅으로 글로벌 MICE 도시로서 입지를 굳히는 등 외국인 관광객을 위



국제 크루즈선 ‘실버 위스퍼’ 여수항 입항.

한 맞춤형 유치 행보가 실효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40~50대 관광객이 가장 많이 여수를 찾았고, 다음으로 20~30대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관광객 수를 기록한 달은 7~8월로 여수가 여름 휴가지로 각광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연령대별 선호 관광지는 20~30대 관광객은 종포해양공원과 여수세계박람회장을, 50~60대 관광객은 오동도, 향일암, 남도·조발도 등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즐기는 경향을 보였다.

/여수(전남)=전정신 기자 spirit@

부산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서비스 시행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지원

부산시는 전세피해임차인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서비스 지원’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30일 부산지방법무사회와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법률서비스 지원’ 업무 협약에 따라 추진한다.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서비스 지원 사업은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가 경·공매를 통해 피해주택을 낙찰받았을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법무사를 매칭하고 대행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상 4가지 요

건을 모두 충족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받은 임차인이며, 낙찰받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시에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자에게는 건당 최대 20만 원의 수수료를 지원하며, 인지대 및 송달료 등 법무사 보수 외 비용은 지원이 불가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전세사기피해자는 5일부터 관련 서류를 지참해 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준비 서류는 신청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신분증, 매각허가결정정본(사본), 매각대금완납증명원(사본) 등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주택정책과 또는 시 전세피해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고성군, 벼 재배 농가에 ‘월급제’ 추진

최대 210만원까지 가능

경남 고성군이 2024년도 ‘농업인 월급제’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는 가을에 편중된 농업소득의 안정적인 배분과 계획적인 농업 경영을 도모하고, 농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가을에 편중된 벼재배 농가의 농업소득을 벼 수매 계획 물량의 70% 내에서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농업인들에게 미리 지급하고 농협 자체 수매 후 원금을 상환하게 하는 사업으로, 월급은 최소 35만 원부터 최대 210만 원까지 무이자로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벼 재배 농가로, 농협과 자체 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하고 벼 재해보험에 가입해야만 신청할 수



/고성군

있다. 다만 전년도 농외소득이 1200만 원 이상인 농가는 제외된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4월 12일까지 농협과 체결한 자체 수매 약정서와 건강보험확인서, 통장 사본을 지참해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조석래 농촌정책과장은 “농업인 월급제는 수확기 이전 영농준비금, 생활비, 자녀교육비 등으로 일시에 집중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고성(경남)=이도식 기자

밀양시, 재해위험개선지구 1367억 투입

2021년~2027년간 4곳에 지원

경남 밀양시는 최근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로 인해 발생한 자연재해로부터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각종 재해 예방사업 및 방재시설물을 점검하는 등 자연 재난에 선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4곳에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총사업비 1367억원(국비 683억원, 도비 416억원, 시비 268억원)을 투입해 자연재해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먼저 용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시행한다. 단장면 대룡리 일원에 298억원을 투입해 용

포천(길이 4.2km) 제방을 축조하고 호안을 정비한다. 교량도 새로 만들어 제방 월류로 인한 주택과 농경지 침수를 예방한다.

또 삼랑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삼랑진을 검세리 일원에 418억원을 들여 배수로 개선, 저류지 설치 및 배수장 증설로 낙동강 수위가 상승할 때 물 빠짐을 좋게 해 침수 및 인명피해를 예방한다.

검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초동면 검암리 일원에 198억원을 투입해 하천을 정비하고 배수장을 설치해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주거지와 농경지 침수 피해를 줄인다.

/밀양(경남)=이도식 기자

설 앞두고 과일·채소 등 신선식품 가격 ‘깡충’

“간편식으로 상차림 부담 덜어요”

설 명절을 앞두고 과일과 채소를 비롯한 신선식품 가격이 치솟으면서 명절 상차림 부담이 커진 가운데, 시간과 가격부담을 덜 수 있는 간편식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달 농·축·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122.71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8.0% 올랐다. 이는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인 2.8%의 2.8배 수준이다.

특히 과일 물가상승률이 28.1%로 전체 평균의 10배를 넘었다. 품목별 상승률을 살펴보면 사과가 56.8%를 기록했고 복숭아 48.1%, 배 41.2%, 귤 39.8%, 감 39.7% 순이다. 곡물과 채소 등의 농산물 가격상승률도 각각 9.2%와 8.8%로 높았다. 특히 파 상승률은 60.8%로 전체 농·축·수산물 품목 중 가장 높았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농산물 유통 가격은 더 높아지고 있어 명절 상차림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간편식이 명절 상차림의 대안으로 떠올랐다. 장기화된 고물가 영향과 나홀로 설을 보내는 ‘혼설족’들 수요도 적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신세계푸드에 따르면 프리미엄 간편식 브랜드 ‘호텔컬렉션’ 냉동국탕류의 1월 판매량은 전년 추측 대비 165% 늘었다. 이는 일반 국탕류 간편식 판매증가율 62% 대비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효율적인 시간 활용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구매 행태가 식품 구입에 중요한 기준이 되면서 프리미엄 냉동 간편



지난달 18일 서울 노랑진수산물도매시장에서 방문객들이 수산물을 구매하고 있다.

/뉴시스

신세계푸드 ‘호텔컬렉션’
냉동국탕류 판매량 165% 급증
11일까지 최대 30% 할인판매

SSG닷컴, 전류 매출 163% ↑
컬리, 300여개 상품 35% 할인
오아시스마켓, 인기상품 70% ↓

식이 호응을 얻는 것으로 보여진다.

신세계푸드는 이번 설 명절에도 고 품질과 편의성을 동시에 원하는 주부들 사이에 프리미엄 냉동 간편식의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해 SSG닷컴을 통해 오는 11일까지 ‘호텔컬렉션’ 국탕류 제품을 최대 30%까지 할인가격에 판매한다.

SSG닷컴에서는 지난달 20~26일 기준으로 설 차례상에 쓰이는 간편식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냉동 간편식 중에서는 전류

(163%) 매출 상승이 압도적이었다. 프라이팬이나 에어프라이어로 간단히 조리해 바로 상에 올릴 수 있는 ‘부침명장 꼬치산적’ ‘백반기행 소고기 육전’ 등이 매출 상위 메뉴에 올랐다. 만두·전병류 매출도 지난해보다 93% 늘어났다.

설 간편식 수요를 잡기 위해 유통업체는 다양한 상차림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컬리는 수산·정육·채소육·과일 등 신선 식품부터 다양한 간편식까지 총 300여개 상품들을 최대 35% 할인 판매하며, 오아시스마켓은 인기 상품을 엄선해 최대 70% 할인 판매한다.

편의점 업계는 설 명절 연휴 기간 ‘혼설족’을 위해 도시락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인구구조가 변화하면서 간편한 상차림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1인가구를 겨냥한 명절 도시락 간편식도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BBQ 치킨·HMR 주문 한곳서 하세요”

제너시스BBQ ‘통합앱’ 론칭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 그룹은 BBQ 치킨을 주문할 수 있는 자사 앱 ‘BBQ앱’과 집에서도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HMR(가정간편식)을 판매하는 쇼핑몰 ‘BBQ몰’을 하나로 합친 ‘BBQ 통합앱(이하 통합앱)’을 론칭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통합앱을 통해 기존 BBQ앱에서의 서비스와 멤버십 혜택을 프리미엄 HMR 전문 브랜드몰 BBQ몰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BBQ는 지난해 BBQ앱에 클라우드 시스템 도입 및 UI/UX(사용자 환경·경험) 개편을 통해



자사앱 사용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또한 ‘BBM 멤버십’을 도입해 치킨 주문시 포인트 적립 외에도 ▲웰컴 ▲치맥이 ▲BIP ▲BBIP 등급을 부여해 금액 할인쿠폰, 사이드 증정쿠폰, 생일 쿠폰 등을 제공한다.

/신원선 기자

SSG닷컴 “축산 선물, 설 전 배송 받아요”

선물세트 4종 예약판매 돌입

SSG닷컴은 5일부터 오는 8일 오전 9시까지 설 전날인 9일 받아볼 수 있는 축산 선물세트 4종을 예약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마트와 협업해 한우 세트 3종과 와규 세트 1종을 점별 한정 수량으로 준비했으며, 강원도부터 제주도까지 전국 ‘쓱배송’ 권역에서 주문 가능하다.

쓱닷컴은 명절 전 배송 및 상품 수령 일정을 고민하는 고객, 택배배송 마감 이후 선물세트를 구매하는 고객, 설 하루 전날 신선한 상품을 받고 싶은 고객을 위해 자체 배송 시스템을 활용한 상

품을 준비했다. 온도가 중요한 냉장 상품인 만큼 배송 시간대까지 지정할 수 있어 안전하게 선물세트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먼저, ‘피코크 한우 냉장 1호 세트 3kg(불고기, 국거리, 등심)’을 소개한다. 점별 300개 한정 수량으로 준비했으며 가격은 10% 할인한 22만 3200원이다. ‘피코크 한우 냉장 2호 세트 2kg(국거리, 등심)’을 점별 200개 한정 10% 할인한 16만 200원에, ‘피코크 한우 냉장 3호 세트 2kg(불고기, 국거리)’을 점별 200개 한정 10% 할인한 9만 7200원에 판매한다. /최빛나 기자 vitna@

이마트24 ‘드래곤빌리지’ 협업상품 인기

도시락·김밥 등 매출 전년비 27% ↑

스토리와 재미, 혜택을 담은 게임 협업 상품이 고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편의점 이마트24는 올해 초부터 판매 중인 드래곤빌리지 협업 상품이 호응을 얻으며 도시락·김밥·주먹밥·햄버거·샌드위치 등 FF(프레시 푸드) 상품군 매출을 견인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마트24가 올해 1월 FF상품 판매 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전년 동월 대비 27%로 높은 매출 증가율을 기록했다으며, 드래곤빌리지 협업 상품이 세부 상품군(도시락·김밥·주먹밥·햄버거·샌드위치)에서 모두 베스트3에 이름을 올리는 등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트24는 드래곤빌리지 상품의 인



이마트24에서 고객이 드래곤빌리지 협업상품을 구입하고 있다.

/이마트24

기 요인으로 ▲용의 해에 딱 맞는 게임과의 협업 ▲귀여운 캐릭터 패키지와 스토리를 담은 워트있는 네이밍 ▲소장하고 싶은 피부설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 쿠폰 등을 꼽고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기존 운영 중이었던 맛있는 상품과의 시너지를 발휘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최빛나 기자

나라셀라, 팝업 열고 프리미엄 와인 선봬

롯데백 잡실점에 ‘로칠드 하모니’
샴페인 바롱 드 로칠드 제품 준비
와인도슨트 여는 등 이벤트 마련

와인 수입사 나라셀라가 오는 6일부터 18일까지 롯데백화점 에비뉴엘 잡실점(지하 1층)에서 ‘로칠드 하모니’ 팝업스토어를 연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팝업스토어에서는 보르도의 그랑 크뤼 1등급 포도원 ‘샤또 무퐁 로칠드’, ‘샤또 라피트 로칠드’와 ‘샤또 클라크’를 보유한 프랑스 와인 명가 ‘로칠드’ 가문의 세 분파가 2005년 최초로 화합하여 탄생한 프리미엄 샴페인 하우스 ‘샴페인 바롱 드 로칠드’의 레어 컬렉션을 비롯해 샤또 무퐁 로칠드, 샤또 라피트 로칠드의 평소 구하기 어려운 프리미엄 레

드 와인들을 만나볼 수 있다.

‘샴페인 바롱 드 로칠드’는 그랑 크뤼와 프리미엄에 크뤼 포도밭의 포도를 90% 이상 블렌딩하여 제조되며, 최소 4년에서 10년 이상의 숙성 과정을 거쳐 탄생하는 최고 품질의 샴페인 하우스다.

이번 팝업 스토어에서는 샴페인 바롱 드 로칠드의 가장 기본적인 샴페인인 ‘몽코르디아 브뤼’, 세련되고 우아한 ‘로제’, 샤도네이의 섬세함을 보여주는 결정체 ‘블랑 드 블랑’, 번덕스러운 날씨로 수확량은 적지만 다른 해에 비해 뛰어난 포도로 생산된 ‘브뤼 밀레짐 2014’ 등을 만나볼 수 있다.

나라셀라는 이번 팝업 스토어 오픈을 기념해 다채로운 이벤트도 마련했다. 팝업스토어 운영 기간 중 매주 화요

일에는 샤또 무퐁 로칠드 아트 레이블 갤러리 존에서 와인 도슨트가 열리며, 샴페인 바롱 드 로칠드 브뤼를 하프 بوت(375ml) 또는 글라스로 즐길 수 있는 팝업 라운지도 운영된다.

또 팝업스토어 방문 인증샷을 SNS에 포스팅하면 매일 선착순 300명에게 버블 뽑기 이벤트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이 밖에 팝업스토어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는 스페셜 패키지에 글라스(2P)를 증정하고 샴페인 보틀에 나만의 문구를 담을 수 있는 강그림 작가의 캘리그래피 이벤트도 진행한다. /신원선 기자

YouTube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현대백 전국 8개점포서 ‘해외패션대전’

12일부터 순차적 진행

현대백화점이 ‘해외패션대전’ 등 연휴맛이 다양한 이벤트를 열고, 설 연휴 쇼핑 수요 잡기에 나선다.

현대백화점은 오는 12일부터 25일까

지 압구정본점, 판교점, 무역센터점 등 전국 8개 점포에서 순차적으로 ‘2024년 S/S(봄·여름) 해외패션대전’을 진행한다. 5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막스마라·무이·랑방·질샌더 등 총 100여 해외패션 브랜드가 참

여하며, 브랜드별로 이월 상품을 최초 판매가 대비 10~70% 할인해 판매한다.

현대백화점은 이번 해외패션대전에서 현대백화점카드로 구매한 고객에게 구매 금액대별 최대 10% 상당의 현대백화점 상품권을 증정한다. 또, 일부 점포에 한해 현대백화점카드로 100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는 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최빛나 기자

하림, 단백질 ‘피플러스’ 전국 이마트 입점

종합식품기업 하림이 단백질 전문 브랜드 피플러스의 단백질 보충제와 단백질바 제품을 전국 이마트 매장에서 선보인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전국 이마트에 입점한 품목은 ‘피플러스 프로틴플러스’와 ‘피플러스 닭가슴살 단백질바’ 등 매끼 챙겨먹기 힘든 단백질을 간편하고 맛있게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품들이다.

‘피플러스 프로틴플러스’는 분리달걀가슴살단백질(ICBP)에 농축유청단백분말, 분리대두단백까지 동·식물성 단백질 3종을 조합한 기능성 단백질 제품이다.

닭가슴살에서 분리 추출한 분리달걀가슴살단백질(ICBP)은 닭가슴살 원물 대비 지방은 절반이고, 단백질 함량은 4배 이상 높다. /신원선 기자

CJ제일제당 비비고, 새로운 BI로 ‘K-푸드 대명사’ 자리매김

서유럽·할랄시장 개척 가속화
글로벌 소비자에 맞춰 재정비

新 BI, 식문화 나누는 밥상 형상화
한글·영문 넣어 韓 브랜드 각인
치킨·만두, 대형 카테고리 육성

CJ제일제당 비비고가 올해 명실상부한 글로벌 K-푸드 브랜드 위상에 맞는 모습으로 거듭난다.

CJ제일제당은 한국 식문화 대표 브랜드 비비고를 글로벌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새단장 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는 서유럽과 무슬림 인구를 겨냥한 할랄 시장 개척 등을 목표로 신영도 확장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브랜드를 재정비해 전 세계에서 ‘K-푸드의 대명사’로 자리매김 한다는 목표다.

우선 새로운 BI를 선보여 이달부터 국내를 시작으로 일본, 유럽, 동남아, 미국 등 순차적으로 제품 포장에 적용한다. 새 BI는 한국 식문화를 함께 나누는 사람과 사이의 연결을 의미하는 밥



CJ제일제당 비비고가 새 글로벌 BI를 적용해 K푸드 세계화에 나선다.

/CJ제일제당

상을 형상화했다.

비빔밥을 담은 돌솥 모양에서 벗어나 K-푸드의 외연을 확장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 또한 이전에 영문만 표기했던 것과 달리 한글을 함께 넣어 한국의 브랜드라는 점이 각인될 수 있도록 했다.

브랜드 리뉴얼과 함께 ‘치킨’과 ‘K-스트리트 푸드’를 ‘넥스트 만두’로 선정, 두 가지 품목을 해외 시장에서 대형

카테고리로 집중 육성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국내에서 성과를 낸 ‘소바바치킨’의 해외 진출을 위한 글로벌 생산기지를 확보하고, 글로벌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떡볶이, 봉어빵, 냉동김밥 등의 판매를 확대한다.

비비고는 ‘한식으로 더 맛있는 일상’을 뜻하는 브랜드 슬로건인 ‘리브 딜리셔스(Live Delicious)’를 내세운 다양

한 캠페인으로 글로벌 Gen-Z세대 소비자들과 계속해서 소통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8월 비비고는 ‘Life tastes better when you live delicious’를 키 메시지로 비비고를 통해 ‘더욱 맛있고 즐거워지는 삶’을 중독성 있는 캠페인 송으로 만들어 전세계에 알렸다. 또 캠페인의 일환으로 소비자 참여형 ‘#LiveDelicious 챌린지’를 진행했다. 한국

정관장, 설선물 ‘당일신청·배송’ 서비스 진행

일반 택배 마감 후에도 받아볼 수 있어
결제 즉시 가까운 매장에서 직접 배송
2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엔 무료 제공

KGC인삼공사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정관장 제품을 구매하면 실시간으로 배송하는 ‘당일신청·당일배송’ 서비스를 오는 8일 정오까지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정관장 ‘당일신청·당일배송’은 일반 택배 마감 후에도 선물을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로, 결제 즉시 배송지에서 가장 가까운 정관장 매장에서 직접 배송된다.

설연휴 직전인 2월 8일 정오까지

정관장 로드샵에 방문하거나 고객센터 또는 정관장몰에서 배송지와 가까운 정관장 매장을 안내받아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고 20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는 무료로 제공된다.

전국 800여 정관장 로드샵에서는 가족과 지인에게 선물하기 좋은 다보록, 천녹, 에브리타임, 홍삼툰, 황진단, 달임액, 화애락, 홍천웅, 활기력, 홍삼정 X마누카 시그니처 기획세트, 홍삼정 헤리티지 에디션 등의 정관장 인기제품에 다양한 구매 혜택을 제공한다. 정관장 직영 온라인몰인 ‘정물’을 이용하는 고객은 ‘매장픽업’, ‘특별포장’ 서비스도 만나볼 수 있다.

‘매장픽업’ 서비스는 ‘정물’에서 온라인으로 결제하고 알림톡 또는 SMS 제품 교환권을 수령하여 원하는 시간대 원하는 정관장 매장에서 제품 픽업이 가능하다.

선물을 직접 들고 다니기 힘들거나 배송처의 정확한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 적합하다.

정물의 시그니처 서비스인 ‘특별포장’은 소비자의 취향에 따라 홍색보자기, 청색보자기, 한지, 리본 등 다양한 형태를 고를 수 있고 포장 전문 명인이 직접 섬세하게 포장해 제품의 품격을 높이고 정성을 더할 수 있다.

/신원선 기자



신세계면세점, ‘아르마니’ 팝업 매장 오픈

신세계면세점이 이탈리아 럭셔리 뷰티 브랜드 ‘아르마니(ARMANI)’ 팝업 매장을 오픈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팝업 매장은 오는 29일까지 서울 중구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10층 아이코닉 존에서 운영된다. ‘아르마니 뷰티’를 상징하는 강렬한 붉은색과 함께 감성적인 상징하는 용을 표현한 고급스러운 비주얼이 특징이다. 이번 팝업 매장에서는 수준 높은 디자인의 뷰티 패키지 제품들을 선보인다. 또, 아르마니 뷰티 홍보대사인 그룹 갯세븐 멤버 ‘채은’이 10층 아이코닉 존 대형 미디어파사드를 통해 등장한다.

/신세계면세점

GC셀

‘간암 바로 알기 강좌’ 성료
조기진단 필요성 등 알려

GC셀이 간암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GC셀(지씨셀)은 2월 2일 ‘간암의 날’을 기념해 ‘간암 바로 알기 건강강좌’를 성료했다고 5일 밝혔다.

이혜원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교수와 서미라 지씨셀 GMP 제조부문 유닛장은 연자로 참여해 간암의 원인, 조기진단의 필요성, 치료 방법 등을 설명했다. 특히 지씨셀의 면역세포 치료제인 셀엘씨주 관련 임상적 효과를 공유했다.

이문셀엘씨주는 초기 간세포암종 환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3상 임상시험에서 대조군 대비 재발 위험을 37% 낮추고 사망률을 79% 낮추는 효과를 입증해 간암 수술 후 치료제로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최근 누적 치료 1만명의 데이터도 확보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셀트리온제약, ‘베그젤마 심포지엄’ 개최

대장암 전문의와 학술교류

셀트리온제약이 학술 교류의 장을 마련해 아바스티 바이오시밀러 ‘베그젤마(성분명: 베바시주맙)’의 효능과 안전성 입증에 나섰다.

셀트리온제약은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양일간 제주도에서 대장암 전문의들을 대상으로 ‘베그젤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김종광 경북의대 교수와 신상준 연세의대 교수는 좌장을 맡았다.

임주한 인하의대 교수, 권민석 아주의대 교수, 범승훈 연세의대 교수는 연자로 참석해 최신 대장암 치료 경향에서 베그젤마의 역할을 공유했다.

▲베바시주맙 바이오시밀러 및 베그젤마 제품 소개 ▲진행성 대장암 현재 치료법 및 차세대면역기서열분석법의 역

할 ▲전이성 대장암에 대한 3차 이상 치료법 등 3개로 구성된 세션 발표도 각각 이어졌다.

‘베그젤마’는 지난 2022년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획득한 후 같은 해 12월 국내 시판됐다. 베그젤마의 사용 기한은 제조일로부터 48개월로 별도의 안정성 시험을 통해 오리지널 의약품 및 경쟁 바이오시밀러와 차별화됐다.

희석액 냉장 보관(2~8℃)에서도 기존 제품 대비 2배 더 긴 60일로 허가를 받아 사용자 입장에서 약품 관리가 용이하다.

셀트리온제약은 글로벌 임상 데이터와 제품 차별점을 바탕으로 베그젤마의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는 종합병원 중심의 마케팅을 강화해 시장 내 입지를 공고히 할 방침이다.

/이청하 기자

아모레퍼시픽, ‘창업자 서성환’ 전시회 열어

선대회장 탄생 100년 기념

아모레퍼시픽이 국내 화장품 산업의 선구자인 고(故)서성환 선대회장의 삶과 도전 정신을 소개한다.

아모레퍼시픽은 ‘아모레퍼시픽 서성환 100년 | 1924-2024’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창업자 서성환 선대회장 탄생 100년을 기념하는 전시회로, 올해 12월 27일까지 경기 오산 ‘아모레 뷰티 파크’에 있는 ‘아모레퍼시픽 아카이브’에서 열린다.

아모레퍼시픽은 아모레퍼시픽 아카이브가 소장한 800여 점의 자료를 공개한다. 1955년에 취득한 국내 1호 화장품 제조업 허가증, 1961년에 작성한 연구일지 등 1950년대부터 최근까지의 생산품과 간행물, 사진 등을 전시하고 있다.

특히 방문객은 네 개의 주제에 따라 아모레퍼시픽의 역사와 서성환 선대회장의 발자취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



지난 1일 경기 오산 아모레 뷰티 파크의 아모레퍼시픽 아카이브에서 ‘아모레퍼시픽 서성환 100년 | 1924-2024’ 전시가 막을 올렸다.

/아모레퍼시픽

1945년 아모레퍼시픽을 창업한 서성환 선대회장은 국내 산업 발전에 기여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이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했다. /이청하 기자



한양사이버대학교
www.hycu.ac.kr

No.1 Cyber Education
N1CE HYCU



한양의 명품 교육을 온라인으로

No.1 Cyber Education

명문 한양사이버대학교

2024년 1학기 신·편입생 모집
2024.1.22 ~ 2024.2.15

입학문의

전화 : 02-2290-0082
카카오톡 : 한양사이버대학교 채널

· 모집학과 ·

학부명	학과명
기계자동차공학부	기계제어공학과/자동차IT융합공학과
건축도시건설공학부	디지털건축도시공학과
전기전자통신공학부	반도체시스템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 정보시스템통신공학과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부	국방융합기술학과/응용소프트웨어공학과/컴퓨터공학과/해킹보안학과
에너지신소재공학부	스마트배터리공학과
경영학부	경영정보·A비즈니스학과/글로벌경영학과/마케팅학과/생산물류유통학과/재무·회계·세무학과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	관광항공경영학과/ 호텔외식경영학과
사회과학부	경제금융자산관리학과/교육공학과/광고미디어학과/법·공무행정학과/보건행정학과/부동산학과/사회복지학과/아동학과
심리상담학부	군경상담학과/미술치료학과/상담심리학과/청소년상담학과
국제언어문화학부	영어학과/일본어학과/한국어교육·문화콘텐츠학과
디자인학부	건축공간디자인학과/뉴미디어디자인학과/리빙디자인학과/시각디자인학과/예술문화디자인학과



에쓰오일, 저소득 가정에 ‘사랑의 떡국 나누기’

에쓰오일이 사육 인근 마포구 저소득 가정에 떡국과 설 선물꾸러미를 전달했다. 에쓰오일은 서울 마포구 염리종합사회복지관에서 “2024 설맞이 사랑의 떡국 나누기” 행사를 가졌다고 5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정 중단됐던 행사를 올해부터 다시 시작한 것이다. 이날 CEO 및 임직원 약 50명은 염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저소득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떡국 배식봉사를 진행했다.

/에쓰오일



제주항공, 갑진년 맞아 기내서 ‘세뱃돈 봉투’ 제공

제주항공이 2024년 갑진년(甲辰年) 설을 맞아 승무원이 직접 디자인한 세뱃돈 봉투를 기내에서 제공한다. 제주항공은 오는 2월8일과 9일 이틀간 김포, 대구, 광주, 청주, 부산에서 제주로 향하는 국내선과 비행시간이 1시간10분 이내의 일부 노선을 제외한 한국발 모든 국제선에서 승무원 특화서비스인 일러스타팀이 제작한 캘리그래피와 제주항공 친환경 캠페인 캐릭터인 ‘제코(JEJU+ECO)’가 그려진 세뱃돈 봉투를 증정한다.

/제주항공



중기중앙회 ‘제1차 중기 익스프레스’ 개최

중소기업중앙회가 기획재정부와 함께 중소기업 현장 애로 해결을 위해 본격 팔을 걷어붙였다. 중기중앙회는 기재부와 중기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에서 “제1차 중기 익스프레스”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중기 익스프레스는 지난달 1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중소기업인 간담” 당시 중기중앙회와 기재부가 함께 전국 중소기업을 방문해 애로를 개선하는 정례협의체 구성에 뜻을 모은 바 있다.

/중기중앙회



한림대강남성심병원, 쌀·라면 나눔 등 봉사활동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은 31일 지역사회 이웃들의 따뜻한 설 명절을 위해 ‘사랑의 쌀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전 교직원들은 이번 나눔을 위해 총 1050만원 상당의 성금을 모았다. 봉사단은 모인 성금으로 인근 지역구 내 소외된 저소득층 이웃 220가구에 각각 쌀10kg, 라면 한 박스, 떡국떡 1kg으로 구성된 물품 세트를 전달했다.

/한림대강남성심병원

공영효쇼핑, 김영주 사내이사 선임

공영효쇼핑은 지난2일 주주총회를 열고 김영주(사진) 전 농협경제지주 상무를 사내이사로 선임했다고 5일 밝혔다. 신임 김영주 사내이사는 농협중앙회 비서실 국장, 회원경제지원부장, 농협경제지주 상무를 거쳐 부산경남유통 대표이사를 역임하는 등 30년 이상 농협에서 농업인의 권익보호와 농산물 유통담당 등 농업정책 전반을 수행해왔다.

/김승호 기자



이미경, 韓 최초 ‘아부다비 페스티벌 어워즈’ 수상

〈CJ ENM 부회장〉

K컬처 확산 주도 등 공로 인정
“크리에이터들 전폭 지원할 것”

이미경 CJ ENM 부회장이 3일 한국인 최초로 ‘아부다비 페스티벌 어워드’를 수상했다.

아부다비 페스티벌 어워즈는 아부다비음악예술재단이 매년 일생동안 예술과 문화에 뛰어난 공헌을 한 개인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2012년 제정된 이래 팝음악계의 대부 퀸스존스, 세계적인 첼리스트 요요마, 오페라계의 전설적인 지휘자 리카르도 무티를 비롯해 유럽, 미국, 중동, 아시아 등 세계 각지의 문화예술계 거장이 수상했다.

이 부회장은 한국문화아름다움과 K컬처 확산을 주도, 세계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아부다비음악예술재단은 “이 부회장은 다양한 문화성을 가진 크리



이미경 CJ ENM 부회장이 수상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미경 CJ ENM 부회장, 셰이크 나얀 빈 무바라크 알 나얀 아랍에미리트 관용공존부 장관, 후다 알카미스 카누 아부다비음악예술재단 이사장.

/CJ ENM

에이터들을 전폭 지원하고, 세대를 초월해 문화와 예술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냄으로써 동서양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시상은 셰이크 나얀 빈 무바라크 알 나얀 아랍에미리트 관용공존부

장관과 후다 알카미스 카누 아부다비 음악예술재단 설립자 겸 아부다비 페스티벌 예술감독이 직접 진행했다.

후다 알카미스 카누 이사장은 “이 부회장은 한국 영화 및 음악 산업의

발전을 이끌고 한국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는 데 선구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라며 “전 세계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힘써 준 공로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계기로 아랍에미리트와 한국의 문화 외교가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영화 ‘기생충’(감독 봉준호·2019) ‘헤어질 결심’(감독 박찬욱·2022) ‘브로커’(감독 고레에다 히로카즈·2022) 등 총괄 프로듀서를 맡았다. 미국 아카데미 영화박물관 이사회 부의장, 국제TV예술과학아카데미(IATAS)·미국 해머 미술관 이사진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정부 문화훈장 중 최고 등급인 금관문화훈장을 받았다. 2022년 국제 에미상 공로상과 미국 아카데미 영화박물관 필러상도 안았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지난 2일 ‘2024년 설 맞이 쌀 전달식’에서 장재훈 롯데물산 대표이사(왼쪽)와 서강석 송파구청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롯데물산

소년소녀가장 등 1200세대에 쌀 나눔

롯데월드타워·물

송파구 돌봄 이웃 지원

롯데월드타워·물이 설 명절을 맞아 송파구 돌봄 이웃을 위한 ‘쌀 나눔’을 실천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일 송파구청장 집무실에서 진행된 ‘2024년 설 맞이 쌀 전달식’에는 장재훈 롯데물산 대표와 서강석 송파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올해 ‘설 맞이 쌀(백미 10kg) 나눔’은 송파구청과 함께 우선지원가 구 1200세대를 선정해 5~6일 양일간 관내 소년소녀가장, 홀몸 어르신 등 돌봄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롯데월드타워·물에 입주한 5개 계열사(물산, 백화점, 면세점, 마

트, 하이마트)는 지난 2014년부터 10년간 매년 설과 추석에 ‘쌀 나눔 활동’을 진행해왔으며 현재까지 총 2만여 세대, 200t(톤)에 달하는 쌀을 지원했다.

장재훈 롯데물산 대표이사는 “송파구 돌봄 이웃에게 저희가 준비한 작은 마음이 따뜻한 위로와 응원의 선물이 되길 바란다”며 “2024 갑진년, 청룡의 기운을 받아하시는 모든 일에 건승하는 힘찬 한 해 되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한미약품 ‘빛의소리 나눔콘서트’ 열어

MPO와 장애 아동위한 나눔 앞장

현직의사로 구성된 메디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MPO)가 자선음악회를 열고 장애 아동을 위한 나눔에 앞장선다. 한미약품과 MPO는 오는 25일 오후 2시 경기 분당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제10회 빛의소리나눔콘서트’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콘서트에서는 지휘자 조윤선과 바이올리니스트 송지원의 리더로 요한 시트라우스 ‘오페라 박쥐

서곡’,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 마단조 작품번호 64’, 마스카니 ‘간주곡’ 등이 연주될 예정이다.

특히 빛의소리 나눔콘서트를 통해 조성한 기금을 10년째 지원받고 있는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합주단 ‘어울림단’이 MPO와 협연해 드라마 하얀거탑 OST ‘비 로제트’를 선보인다. 한미약품과 MPO는 매칭펀드로 기금을 만들어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더사랑복지센터 등을 후원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 맞손

기보·중진공·우리銀·우리벤처
유망기업 발굴·육성 위해 마련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우리은행, 우리벤처파트너스가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손을 잡았다.

기보와 중진공은 우리은행, 우리벤처파트너스와 5일 서울 중구 우리

은행에서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참여 4개 기관이 보증·융자·투자 등 정책금융과 민간금융 간 협업금융 지원체계를 구축해 중소벤처기업의 정책수요를 해소하고, 유망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승호 기자 bada@

“글로벌 물류산업 선두주자 만들 것”

강병구 롯데글로벌로지스 대표
글로벌 공략 ‘4대 실행전략’ 제시

강병구 롯데글로벌로지스 신임대표가 ‘글로벌 물류 산업의 선두주자’ 포부를 밝혔다.

5일 롯데글로벌로지스에 따르면 지난 2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취임한 강병구 신임대표는 “롯데글로벌로지스를 글로벌 물류 산업의 선두주자로 만들어 끊임없이 혁신하는 기업으로 탈바꿈시키겠다”며 “도전과 혁신을 통해 임직원과 함께 소통하며 강력한 실행력으로 글로벌 물류 시장을 선도해나가겠다”며 비전을 제시했다.

강 대표는 비전 달성을 위한 4대 실행전략으로 ▲혁신과 솔루션을 통한 선도적인 고객 서비스 차별화



강병구 롯데글로벌로지스 대표가 지난 2일 취임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롯데글로벌로지스

▲물류 영토 확장을 통한 글로벌 사업에서 비약적인 성장 추구 ▲고부가가치를 지닌 크로스보더 이커머스(국가 간 전자상거래) 물류 등 신사업 개발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 ▲내부 조직간의 원활한 협력과 정보공유 및 외부 파트너, 협력사와의 긴밀한 협업 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김승호 기자

인사·부음

◆방위사업청◇ 과장급 전보 △기반전략사업전력화지원관리팀장 강종수

◆CWN(센트럴월드뉴스)△ 산업1부장 서종열

◆한국콘텐츠진흥원◇정기인사 △글로벌혁신부문 경영전략본부 본부장 김락균 △전략기획팀 팀장 박인남(전보) △운영지원팀 팀장 이지환(전보) △재무팀 팀장 김정욱 △소통홍보팀 팀장 이하영

▲이내정씨 별세, 유창식(강릉아산병원장)씨 빙모상, 이민형·이연미씨 모친상=5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5호(3층), 발인 7일 오전 9시. 02-3010-2295

▲김내정씨 별세, 이민형·이연미씨 모친상, 유창식(강릉아산병원장)씨 빙모상=5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5호(3층), 발인 7일 오전 9시, 장지 홍천군 선산. 02-3010-2295



유한양행

2024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홈
HAPPYHOME®
파워캡슐 올인원

세척·탈취·유연·향기
빨래를 알아서 한 번에!



유한양행
버들장터
바로가기

설 명절 선물세트 구매는
유한양행 자사몰 버들장터에서



사회적 대화 재개



한 용 수 역
돌직구

노사정(노동자·사용자·정부)이 고용정책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가 6일 재개된다.

노사정은 지난해 11월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복귀 선언 이후 10차례 각 부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본위원회에서 다룰 의제 등을 놓고 조율해 왔다.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가 열리는 건 이번 정부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시장 문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재개는 노사 갈등을 예방하고 상생 관계를 강화해 결국 생산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하지만, 그간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가 걸어진 길을 되돌아보면 향후 일정이 순탄치 만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많다.

실제로 본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제 선정부터 첨예한 의견차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노동시간과 계속

고용 또는 정년연장 등 노동계와 경영계가 서로 반대편 입장에 설 수밖에 없는 사안을 주제로 하기 때문이다.

경사노위는 지난 30년 가까이 100여건의 합의와 50여 건의 권고·건의를 이끌어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정리해고·과건근로 도입이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임금 동결·고용 유지 등 그 성과는 손에 꼽을 정도에 불과하다.

반면, 민주노총이 탈퇴를 선언하거나 한국노총이 합의를 파기하고 대화 불참을 선언하는 등 파행이 더 많았다. 애초부터 딱 떨어지는 명확한 해답이 없는 문제를 논의하다보니 쉽게 합의에 이르지 못한 측면도 많았다. 여기에 낮은 노조조직률 등 대표성 문제 등이 거론되며 사회적 대화 무용론도 제기돼 왔다.

그럼에도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지속되어야 한다. 제도 개선이라는 직접적인 성과가 없었더라도, 이해관계가 격돌하는 쟁점에 대해 노사 양측이 주장을 펴고, 공론화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효과가 있어서다. 당장 성과를 내기보다 뚝뚝한 걸음씩 전진한다는 자세가 필요한 이유다.

우리 노동시장은 인구구조 변화와 초고령사회 진입 등으로 인한 청년과 중장년 이후 계속 고용, 산업전환 대응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위기 상황이다.

노사 양측은 각자 이해타산을 하기에 앞서 미래 세대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보다 먼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우리쪽이 가져갈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상대방에게 내 줄 것이 무엇이 있는지 먼저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 경제는 안으로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양극화로 인한 위기에 직면해 있고, 밖으로는 전쟁과 자국 우선주의 등 통상환경이 급변하는 등 글로벌 위기에 위협받는 상황이다. 그간 IMF 등 몇 차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노사 양측의 양보와 타협이 이번 사회적 대화에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재개된 타이밍은 나쁘지 않다. 여야 정치권은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이미 선거전에 돌입한 상황이다. 정치권의 정쟁으로 둘로 갈라진 민심이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hys@metroseoul.co.kr

외부 영입 vs 내부 발굴의 딜레마



기지 수첩
박 태 흥
(정치경제부)

22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인재 영입에 열을 올리면서 내부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흔히 정당에서 선거를 앞두고 인재를 충원하는 방법은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거나 내부에서 당직자나 보좌진을 충원하는 방법으로 나뉜다. 외부 영입 인사를 늘리면 내부 발굴 인재가 차지하는 공간이 줄어들고, 내부 인재를 발굴하면 외부 영입 인재가 설 자리가 좁아지는 딜레마적 상황이다.

외부인사 영입은 각 분야에서 현장 경험이 충실한 전문가를 수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외부 인사가 갖는 새로운 네트워크를 정당 안으로 확장시키는 효과도 있고, 현장에서 해결이 안 됐던 문제를 국회 안에서

입법과 예산으로 풀어볼 수도 있다.

다만, 외부영입 인사는 지역구에 기반이 확고하지 않거나 비례대표의 경우당의 강성 지지층을 쫓는 정치인이 될 유인이 많다. 거대양당의 적대적 공존 속에서 타협과 가능성의 정치를 펼치기보다는 지지층에 기대는 팬덤 정치에 휘둘릴 가능성이 높다. 외부인사는 현실 정치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당의 생리와 국회의 구조에 빠삭한 내부 영입인사와는 달리, 외부 영입인사는 지역구 주민들과 소통에 소홀하고 중앙정치 이슈를 쫓기에 바쁘다는 이야기다.

내부 인사들은 숙련된 '정치 기술자'들이다. 당직자나 보좌진 생활을 거쳤기 때문에 입법과 예산 업무에 빠삭하다. 당의 입장에서 내부 인재를 많이 등용하면 인력 유출을 막을 수 있고 인재를 육성해 국회의원까지 당선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지금도 소위 일 잘하는 '에이스'

라고 불린 당직자와 보좌관들이 기업에서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보직을 맡아 이직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다만, 내부 인사들은 당이 그어놓은 울타리 안에서만 활동할 가능성이 높다. 어쩌보면 그들도 양당의 적대적 공존이 심화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했던 정치권의 '플레이어'였다. 당에서 오래 활동하다보니 사회 전반적인 분야의 입장에 비슷하다. 내부 인재 발굴이 정말 의정활동 성과와 능력에 따라서 되는지도 의문이다. 오히려 특정 내부 인사의 발굴이 당의 분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국회의원은 300개의 헌법기관이며 의원 1명의 의정활동이 대한민국의 질적 성장을 이끌 수 있다. 결국, 선거를 앞두고 경쟁적으로 외부인사를 수혈하는 것보다 당의 비전과 가치를 잘 실현할 수 있는 인사를 내·외부 가리지 않고 충원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pth7285@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2월 6일 (음 12월 27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선입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생긴다. 48년생 덕을 배운 결과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 60년생 피로를 잊는 즐거운 일이 생긴다. 72년생 첫눈에 반하게 되는 상대를 만난다. 84년생 사랑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37년생 도움을 준 사람에게 보답할 수 있는 하루가 된다. 49년생 지인과 즐거운 술자리가 마련된다. 61년생 윗사람의 칭찬 한마디가 큰 힘이 된다. 73년생 재가할 기회가 오고 있으니 포기하지 마라. 85년생 부모님이 안쓰러운 마음.



38년생 오늘은 평온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50년생 자식 사업이 극복할 기회가 오고 있다. 62년생 열심히 일하는 밑에 사람을 칭찬해 주라. 74년생 칭찬에는 고래도 춤춘다고 했는데. 86년생 투자하러거든 배우자의 말을 들어보라.



39년생 어려울수록 아랫사람을 많이 격려해 줘라. 51년생 운세가 상승하고 있으니 금전 문제가 해결되는 하루다. 63년생 매사에 긍정적인 생각이 관건이다. 75년생 말 많은 일에 이득 될 것이 없다. 87년생 첫 직장에서 월급을 타본다.



40년생 과거에 실어놓은 친절에 덕을 볼 때가 되었다. 52년생 월성부를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하였으니 인원선발을 잘하라. 64년생 남의 떡이 더 크게 보인다. 76년생 외화내빈 한 상대를 파악하라. 88년생 백세시대의 주인공.



41년생 성공을 위해 자식의 능력을 이성적으로 파악해보라. 53년생 무심코 상대를 모욕하지 않도록. 65년생 소심한 자신의 의지대로 해라. 77년생 연을 날려서 연이 높이 오르는 하루와 같다. 89년생 흑사라도 병원 가서 질병을 찾아보라.



42년생 속 빈 강정처럼 허세를 부리면 금방 탈이 난다. 54년생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다는 것을 명심하고 일을 추진하라. 66년생 선배의 조언을 성실히 받아들여라. 78년생 약속은 실천이 따라야 한다. 90년생 성공도 가족력이라는 데.



43년생 매대는 정신을 바로 차려야 손실이 없다. 55년생 서두르면 실패의 원인이 된다. 67년생 계획대로 단계 밟아가며 일하라. 79년생 어려움에 대해 극복할 준비가 되어있으니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다. 91년생 살이 찌니 식습관을 바꾸라.



44년생 집수리는 마무리를 철저히 해야 손실이 없다. 56년생 남의 인생에 참견하지 않으면 구설수가 없다. 68년생 공헌이 책임져야 할 일을 만들게 된다. 80년생 공부로 앞을 내다보는 안목을 갖도록 하라. 92년생 저금의 감사함을 느낀다.



45년생 의욕이 없어 만사가 귀찮다. 57년생 상대가 봐 달라는 요구가 있으니 곤란하다. 69년생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 간절하면 언젠가는 이뤄질 수 있다. 81년생 누구 나 크고 작은 결점이 있다. 93년생 멍하게 자내는 지루한 하루가 된다.



46년생 부인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한 것 같아 불화가 있다. 58년생 생각이 많아지면 머리가 복잡해진다. 70년생 동료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이다. 82년생 폭식 음주는 금물. 94년생 지나친 자만심을 오늘 하루는 모두 내려놓고 휴식하라.



47년생 의욕이 생기고 열정이 넘치는 하루다. 59년생 조금이지만, 마음을 안정시켜야 한다. 71년생 힘들 때 도와주는 친구가 있다. 83년생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현명. 95년생 옛말에 될 성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 했다.



김상회의四季 끝까지 좋기

처음보다 끝이 좋아야 한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구약성경 욥기의 한 구절로 기억된다. 성경의 이 구절은 필자도 좋아하는 구절이다. 한자성어에서는 대기만성(大器晩成)으로 통한다고 보고 용두사미의 반대말 격이다. 팔자에서는 초년복 좋은 것이 말년복 좋은 것보다 못하다 라고 통용되고 있다. 그래서 소년 급제를 좋아하지 말라고 하는 말까지 있는 것이다. 갑자기 주목을 받고 인기가 올라가면 반드시 누군가는 그의 흠결을 일부러 찾거나 일반인이면 문혔을 과오도 커다랗게 조명을 받는다. 유명세에 대한 대가인 것이다.

운기의 구조가 그러하다. 조건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지만 그러한 가운데 지수회풍의 기운이 서로 돌고 돌면서 작용을 주고 받는 것이어서 처음에 좋다고 끝까지 좋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이치는 마음에도 적용되어 좋아도 좋다고 경가망동하지 않는 겸손함과 하심을 가르친다. ‘호사다마(好事多魔)’라고 하듯 좋고 기뻐하는 일에는 시샘이 따를 공산이 큰 것이어서 기쁜 일일수록 몸을 낮추는 것은 지혜이다. 올해는 더욱더 그러하다.

용의 기운 자체가 승전을 갈구한다. 항상 위만 쳐다보고 있다. 용은 물을 만나면 더욱 힘을 받으나 갑진년의 용은 천간의 갑목(甲木)이 진토(辰土)를 극하는 형상이다. 청룡의 기세가 대단하지마는 용을 견제하는 기운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용이 승전을 이룰 때까지는 기운을 잘 모아서 한순간에 거침없이 올라야 한다. 용이 되지 못하면 한낱 이무기로 끝날 것이다. 용이 될 것인가, 이무기가 될 것인가?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러하고 개개인도 마찬가지다. 때를 알고 기다리는 자가 진짜 승전하는 용이 될 것이다. 게으르지 말고 하심이 몸과 마음에 진실로 베인다면 분명 성취의 과실을 얻을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367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471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 3X3 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풀이:

8			4			3		
	7	1			2	7		
	8	2		7				1
			2		1			
3				4		2	5	
		6	9			5	7	
		7	1					9
	2				5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8	7	1	9	2	8	6	3	5
6	9	8	7	2	1	2	8	9
2	2	9	8	8	6	9	7	1
2	9	2	9	7	8	6	1	8
9	8	8	1	6	2	7	9	2
1	6	7	8	2	9	2	8	9
9	2	9	6	8	8	1	2	7
7	1	2	9	9	8	6	8	
8	8	6	1	2	7	9	9	2

8	1	9	2	8	6	7	2	9
6	8	2	7	9	2	9	1	8
2	9	7	8	9	1	8	6	2
7	8	9	6	2	1	8	9	
1	8	6	9	2	8	1	9	7
2	9	9	1	7	8	6	8	2
9	6	1	2	2	9	8	7	8
8	2	2	6	8	7	9	9	1
9	7	8	8	1	9	2	1	6

서울시, '동행파트너' 지원 강화

침수 재해약자 인명피해 막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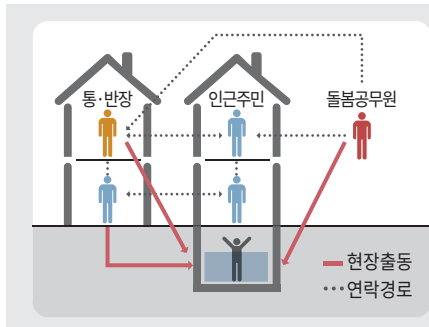
동행파트너 수당 올려 참여율↑
우의·장화·장갑 보호장구 제공
대피동선 등 맞춤 재해지도 제작

서울시가 침수 재해약자를 돕는 동행파트너의 출동 수당을 올리는 등 운영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5일 시에 따르면, 올해 동행파트너의 능동적 참여와 현장 대응력 제고를 위해 행정 지원을 강화한다. 동행파트너 서비스는 이상폭우시 긴박한 침수 상황에서 자력 탈출이 어려운 반지하 거주민의 빠른 대피를 지원해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자 시가 마련한 것이다. 재해약자 가구당 5인 내외로 동행파트너를 매칭해 지원한다.

동행파트너는 인근 주민, 통·반장, 돌봄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며, 지원 대상은 중증 장애인 중 반지하 주택 거주자, 만 65세 이상 세대주 중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 거주자, 만 16세 이하 세대원 중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 거주자다.

시는 작년 시범 사업을 벌이며 반지하 주택 거주 재해약자 954가구를 선정(장애인 328가구, 어르신 491가구, 아동 135가구)하고, 통·반장 등 인근 주민 1685명, 돌봄공무원 706명을 포함 총 2391명으로 동행파트너를 구성해 운영



동행파트너 운영 개요

재해약자 가구 수	954가구 (반지하 거주 중증장애, 노인, 아동)
인원 구성	총 2391명 가구당 5인 내외 (인근주민+통반장+돌봄공무원)
기본 임무	예보시 재해약자 가구 방문 경보시 신속대피 지원
연락 체계	돌봄공무원 주관 단체 카톡방 구성

자료/서울시

했다. 침수 예·경보제와 연계해 재해 취약가구에 신속한 상황 전파 및 대피를 안내하고 침수방지시설 상태 확인 등으로 침수위기 상황에서 재해 약자를 보호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지난해 여름 침수예보가 발령된 ▲6월 8일 밤 11시 ▲7월 11일 오후 3시 ▲7월 26일 밤 8시 ▲7월 30일 오후 6시 총 4회 동행파트너를 운영했다.

시는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야간 및 휴일 침수예보시 인식 부족 등의 사유로 일부 자치구에서 출동률이 미흡했다고 보고 문제점을 보완, 올해 동행파트너 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우선 시는 동행파트너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출동 수당을 상향 조정하고, 보호 장구를 지원할 방침이다.

침수예보가 발령됐을 때 주민이 출동하면 기본수당으로 4만6000원을 주는 것은 동일하나, 출동 시간이 밤 10시 이후 야간이거나 휴일인 경우 기본수

당의 1.5배인 6만9000원을 지급한다. 안전한 현장 출동을 위해 우의·장화·장갑 등 보호장구도 제공한다.

동행파트너의 현장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네거점을 시범 도입하고, 맞춤형 재해지도도 만든다. 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매입한 빈집, 경로당 등을 동네거점으로 조성해 수방 전진기지로 활용키로 했다.

동행파트너와 재해약자를 위한 맞춤형 재해지도도 제작한다. 재해약자의 거주지와 대피 동선, 비상시 행동 요령, 권역별 비상연락망 등이 표현된 리플릿 형태로 재해지도를 만들어 배포할 것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동행파트너의 역량 제고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기존에 일부 자치구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 교육을 전체 25개구로 확대한다. 시는 우기 전인 4~5월 온라인(SNS) 훈련과 현장 교육을 진행한다는 목표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시-구글, AI분야 차세대 리더 육성

‘AI스타트업 스쿨 위드 서울’ 운영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참가 혜택

서울시와 구글이 차세대 스타트업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서울시는 구글과 AI 분야의 초기·예비 창업가를 육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인 ‘AI 스타트업 스쿨 위드 서울’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AI 스타트업 스쿨 위드 서울’은 내달 5일부터 오는 4월 9일까지 6주간 매주 화요일 오후 7~9시 숙명여자대학교 눈꽃광장에서 진행된다.

교육 과정은 ▲기업가정신 워크숍 ▲전략적인 제품 스토리텔링 ▲성공을 위한 리더십 원칙 ▲구글 광고를 통한 고객 확보 전략 ▲스타트업을 위한 AI 및 클라우드 톨 소개 ▲혁신적인 AI 스타트업 창업가들과의 대화 등 총 6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참여자에게는 향후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진행되는 토크 시리즈, 스피커 세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우선

참가할 수 있는 혜택이 부여된다.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는 다양한 창업자들이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구글의 제품·전문성·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스타트업 커뮤니티다. 서울에는 지난 2015년, 전 세계에서 세 번째이자 아시아 최초로 설립됐다.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는 2022년 말까지 130개 이상의 스타트업 지원, 7059억원의 누적 투자유치, 37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이뤘다고 시는 덧붙였다.

모집 기간은 다음달 4일까지이며, AI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AI 스타트업 스쿨 위드 서울은 한 세션당 최대 10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필요한 세션만 신청해 맞춤형으로 참여 가능하다.

희망자는 교육 홍보 포스터에 있는 QR코드나 인터넷주소(<https://google.com/ai-ss-seoul-about>)로 접속한 뒤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파주시 “통학버스 ‘파프리카’ 타고 등교해요”

운정신도시 18개 중·고등학교 있는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노선도 확정

파주시가 경기 최초로 추진하는 ‘파주형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의 명칭이 파프리카로 확정됐다.

파프리카는 지난 12월 파주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1,063건 중 파주시,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3개의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단계별 심사평가를 거쳐 선정된 10건의 우수 공모작 중 대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파프리카’는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버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정학교와 학교 주변 일정 범위의 거리를 오가는 기존의 통학버스와 달리 운정신도시 전 지역, 18개 중·고등학교를 모두 잇는 파주형 통학순환버스는 ‘파프리카’라는 명칭 속에 담긴

의미처럼 학생들이 모두 함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버스다.

이와 함께 시는 ‘파프리카’의 노선도 확정지었다. 작년 말 노선 초안이 공개된 이후 ‘파프리카’ 학생 수요가 있는 해오름마을, 별하람마을을 초기 운행 노선에 포함시켜 운행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통학순환버스를 도입한 선례가 없는 않지만,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해 통학순환버스를 운영하는 사례로는 전국에서 파주가 처음이다. 경기도 내 일부지자체들은 벌써부터 벤치마킹을 타진해오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파주형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파프리카’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맞춰 3월 4일부터 정식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파주(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서울시, AI기술로 고립 위험가구 안부 확인

1인가구 휴대폰 사용량 등 모니터링
위험상황 조기 발견, 사고 예방 목표

서울시가 고립 위험이 높은 1인가구를 대상으로 휴대폰 사용량과 앱 이용 이력 등을 자동으로 모니터링해 위기 신호를 사전에 감지, 빠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방문이나 전화를 불편해하는 1인 가구를 위해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스마트 기술로 위험 상황을 조기에 발견해 사고를 예방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사회적 고립 위험에 처한 시민을 돕기 위해 똑똑안부확인, AI안부든든, 1인가구 안부살핌 등의 안부확인

서비스 3종을 추가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AI 시스템을 통해 주 1회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시행해왔으나 간혹 전화 수신을 거부하거나 간섭으로 느끼는 가구가 있어 안부확인서비스를 업그레이드했다고 설명했다.

‘똑똑안부확인’은 핸드폰 사용량, 걸음수를 측정하는 앱과 사물인터넷 디바이스(문열림센서, 스마트 플러그) 등 휴대전화 통신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다. 핸드폰 사용량이나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에게 자동 전화가 발신되며, 응답이 없을시 담당자가 직접 전화·방문해 안부를 확인한다.

‘AI안부든든’과 ‘1인가구 안부살핌’은 휴대전화 데이터와 전력 사용량을 모니터링하는 서비스다. 가정 내 추가기기 설치 없이 원격검침계량기(AMI)를 이용해 모니터링하고 이상상황이 감지되면 담당자가 현장으로 출동한다. 특히 ‘AI안부든든’의 경우 휴대폰 충전·잠금장치 등 사용 이력도 자동으로 조사해 촘촘한 관리가 가능하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전화 통화로 소통하는 AI안부확인 서비스를 비롯해 이번에 추가되는 3종의 모니터링 서비스를 시민 수요에 맞게 선택하도록 해 지원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설연휴 서울 내 학교 주차장·운동장 개방

연휴기간 안전한 주차환경 조성

서울시교육청은 설 연휴를 맞아 지역주민과 역귀성객의 주차 편의를 위해 이달 9~12일 학교 주차장과 운동장

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주차 공간을 개방하는 학교는 서울시내 공·사립 학교 총 201곳이다. 대상 학교 명단과 주차시설 개방 시

확인하면 된다.

시교육청은 “학교 주차시설 개방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공유누리 서비스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며 “자치구 협조 및 경찰서 순찰 강화 요청 등을 통해 연휴기간 안전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김현정 기자



▲칠레 산불 사망자 99명으로 늘어…
‘국가 애도의 날’ 선포 /사진 뉴시스
▲파월 “몇달 내 금리인하 없어…인플레이2% 기다리진 않아”

▲주중대사 “‘하나의 중국’ 존중 입장 변
화없어…대만과 실질협력”
▲中, 2035년 엑스포 유치 전략?…오사
카에 최대규모 해외관 착공



▲미국, 사흘연속 중동 내 친이란 무장
세력 공습
▲中, 증시 안정 위해 1850조원 규모 안
정자금 필요 /사진 뉴시스

버스타비 **YAP**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